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3월 20일 수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48호

미국, 남조선 호전광들의 합동군사연습소동을 규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벌리려는 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18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얼마전 미국남조선 ≪련합군사령부≫는 오는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남조선전역에서 ≪련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군사연습을 통합한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벌린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군사연습에는 남조선과 미국본토 그리고 일본, 괌도 등 해외기지들에 있는 수만명의 미군무력과 대부분의 남조선군무력이 참가하게 되며 완전한 ≪실전의 분위기≫에서 진행된다고 한다.

부쉬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우리를 ≪악의 축≫으로 선포하고 얼마전에 있은 남조선행각시 최전방과 미군기지들을 싸다니며 전쟁열을 고취한데 이어 최근 미국에서 우리 공화국을 핵공격대상으로 지정한 핵공격씨나리오까지 나돌고 있는 때에 미국이 남조선전역을 작전무대로 하여 악명 높은 ≪팀 스피리트≫를 훨씬 릉가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을 벌려 놓으려 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는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다.

부쉬집단이 이번에 강행하려는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계획≫을 실전에 옮기기 위한 종합적인 전쟁연습이며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 기회를 만들려는 매우 위험천만한 전쟁도발책동이다.

현 미행정부의 반공화국강경적대시정책이 이처럼 실천적인 북침전쟁정책에로 넘어감에 따라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위험계선을 넘어 일촉즉발의 엄중한 사태에 직면하게 되였다.

현실은 부쉬집단이 지금까지 표방해 온 ≪대화재개≫설이 저들의 전쟁흉계를 가리워 보려는 한갖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았다는것을 명백히 실증해 주고 있다.

남조선호전세력이 미국과 함께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에 참가하는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공약한 6.15북남공동선언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적대행위이다.

그것이 북남관계에 초래하게 될 후과는 예측할수 없다.

미국은 상대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가려 보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한다.

우리는 결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피하지도 않으며 지구상 그 어디에 있는 침략자도 무자비하게 타격하고 섬멸할수 있는 멸적의 의지와 힘을 가지고 있다.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원쑤들이 끝끝내 침략의 불을 걸어온다면 침략자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격멸 소탕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것이다.

41개 교육 · 시민단체 교육재정 확충요구

대학생 사이버 시위, 도심 대규모투쟁 등 계획

19일 오전 11시 ≪교육재정 확충, 교육 시장화 정책 전면 철회를 위한 교육주체 ·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열렸다.

이는 교육학생연대,교수노조, 전교조 등 교육제단체 뿐만 아니라 41개 시민사회단체가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 시장화 정책 전면 철회에 대해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전국민적 반대 여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립학교법국민운동본부 상임의장,교수노조 이승백 기획정책실장, 전교조 대학노조 김용백 위원장, 사회당 원용수 대표, 전학협 임시의장 윤수진 연세대 총학생회장, 한총련 대변인 홍익대 총학생회장, 전학련 의장 구정모 서울대 총학생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학생연대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 3월말까지 공동납부연기투쟁을 완강하게 벌릴 것 △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각 학교별로 총궐기, 학생총회 등의 완강한 투쟁 전개 △ 25일부터 대정부 농성투쟁 돌입과 3월 25일과 27일 각각 교육부 사이버 시위 △ 29일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도심 시위 △ 5월 중순 교육행동연대 차원의 총력투쟁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대학가 ≪춘투≫로 자리잡은 등록금 투쟁이 3월 말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유뉴스 2002/03/19

김정일영도자님께 이남 청년학생들이 축하문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생일에 즈음해 그분께 이남의 청년학생들이 축하문을 보내왔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이남의 열혈청년들의 명의로 된 축하문에서 이들은 인류운명개척의 향도자이시며 세계자주화위업의 걸출한 영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을 맞이해 장군님께 뜨거운 흠모와 경모의 정을 담아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축하문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비범한 예지로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시키시어 위대한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데 대해 지적했습니다.

축하문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진정 우리 민족과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시고 만민이 우러르고 받들며 따르는 21세기 태양이시라고 강조했습니다.

축하문은 사랑과 믿음, 흠모와 영광의 화신이시며 행복과 미래의 운명이신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 민족과 온 세계 인류의 태양이시며 장군님의 안녕과 건강하심은 이남 민중과 열혈 청년들의 한결같은 소망이라면서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언제나 건강하시고 안녕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면안내

2 노작
• 일본 정치리론잡지 ≪세까이≫편집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

4 세기와더불어
• 4장 6절 혁명시인 김혁 (2)

5 칭송
• 군풍의 창조물 / 꽃의 왕
• 주체사상과 김정일동지의 대외정책

6 구국의 소리
• 주한미군, 한강독극물방류자 신병인도 거부
• 구국의 소리 뉴스
• 미국의 위험한 북침전쟁책동
• 그날의 반미투쟁정신 더욱 승화시켜나가자
•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과 이회창
• 이북을 걸고드는 반민족망언을 늘어놓은 이회창

9 조선중앙방송
• 주체 91, 3월 18일 보도

11 평양방송
•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 마련

12 아리랑뉴스
• 41개 단체 ≪교육재정 확충요구≫ 기자회견
• 노벨상이 무색한 테러방지법
• 노무현 44.7% – 이회창 40.9%
• 민심 못 읽는 이회창 총재
• 발전소 매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 교수 102인 선언 ≪발전 민영화 유보≫
• 국제노동단체 ≪한국정부는 노동탄압을 중지하라≫

15 운동강좌
• 전체 청년학생운동대오의 통일단결에 대하여 (2)

16 조국통일3대현장
• 민족대단결과 그 구심점 (5)

일본정치리론잡지≪세까이≫편집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노작 주체74(1985)년 6월 9일

다음으로 국제정세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오늘 국제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긴장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이 날을 따라 격화되고 있으며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의 위험이 더욱더 커가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군비를 대대적으로 늘이고 핵무기의 생산과 배치를 다그치고 있으며 모험적인 ≪별세계전쟁≫계획을 들고 나와 군비경쟁을 우주에까지 확대하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국주의자들은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 군사기지를 늘이고 침략무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새로운 군사쁠럭을 형성하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핵무기증강책동으로 말미암아 아세아와 구라파, 중근동과 라틴미주, 남부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이 파괴되고 전쟁의 위험이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방대한 핵무기가 세계도처에 전개되여 있는 조건에서는 세계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 나든지 쉽사리 지역적인 범위를 벗어 나 세계전쟁, 열핵전쟁으로 확대될수 있습니다. 오늘 세계평화와 안전은 위험에 직면하여 있으며 인류는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시대의 엄숙한 요구이며 인류의 한결 같은 지향입니다.

인민들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요구합니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 인민들이나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 인민들이나 할것없이 모두가 다 핵전쟁을 반대합니다.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시대의 엄숙한 요구에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지구상에 드리운 핵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오늘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의 위험이 커간다고 하여 절망속에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전쟁은 결코 불가피한것이 아닙니다.

제국주의자들이 핵무기를 마음대로 쓸수 없습니다. 핵무기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은 ≪핵우세≫를 차지하기 위하여 군비경쟁을 치렬하게 벌리면서도 핵무기를 무서워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쟁정책에 추종하지 않는 나라들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도 미국에 추종하지 않고 자주화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서부독일의 본에서 열렸던 서방 7개국 수뇌자회의에서는 레간의 ≪별세계전쟁≫계획을 다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미국에 맹종맹동하지 않고 있다는것을 말하여 줍니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자주적으로 나가려 하기때문에 미국과 동맹국들사이에 모순이 커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정부는 지난해 여름부터 미국핵함선들이 자기 나라 항구에 들어 오는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안쥬스동맹이 해체된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사이에 모순이 있고 세계반제평화옹호력량이 장성하고 있기때문에 잘 투쟁하면 핵전쟁을 방지할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자들의 군비경쟁을 저지시켜야 합니다.

군비경쟁은 국제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열핵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키는 기본요인입니다.

오늘 아세아와 구라파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지역에서 힘있게 벌어 지고 있는 반전반핵평화옹호운동은 제국주의자들의 핵군비증강책동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단합된 힘으로 제국주의자들의 핵무기증강책동을 폭로규탄하고 핵군비경쟁을 저지시켜야 하며 우주를 군사화하려는 책동을 막아야 합니다.

핵전쟁위험을 종국적으로 없애려면 핵무기를 완전히 철폐하여야 합니다. 지금 지구상에 축적된 핵무기는 인류의 생존과 인류문명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방대한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구우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핵전쟁의 위험은 없어 질수 없으며 인류는 항시적인 핵위협에서 벗어 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핵무기고를 동결시키고 핵무기를 대폭 축감하며 나아가서는 완전히 페기하여야 합니다.

국제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새 세계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세계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넓혀 나가야 합니다.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넓혀 나간다면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저장과 배치를 방지할수 있으며 궁극에 가서는 모든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버릴수 있습니다.

오늘 핵전쟁의 위험이 가장 짙은 곳은 조선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세아지역입니다.

미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남조선과 그 주변에 침략무력을 증강하고 핵무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현대적인 전쟁수단들을 대대적으로 끌어 들이는 한편 이 지역에서 핵전쟁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을 빈번히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남반부에는 최신살륙무기로 장비된 4만여명의 미군과 거의 100만명에 이르는 괴뢰군이 항시적으로 동원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1, 000여개의 각종 핵무기들이 배비되여 있습니다.

조선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세아지역에서 열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려면 이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전개되여 있는 핵무기를 철거 및 파괴하여야 하며 이 지역에서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저장과 반입, 사용을 일체 금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지역 인민들의 의사에 어긋나게 배치되여 있는 다른 나라 군사기지와 다른 나라 군대를 철거시켜야 하며 침략을 목적으로 형성된 군사쁠럭을 해체하고 새로운 군사쁠럭을 형성하려는 책동을 저지시켜야 합니다.

조선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세아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는것은 조선인민과 일본인민들의 리익에 맞을뿐아니라 아세아, 태평양지역 인민들과 나아가서 세계인민들의 리익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민은 일본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조선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세아지역을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세계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넓혀 나가기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할것입니다.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이 자주화되기를 바랍니다. 아세아에서는 일본의 자주화를 실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지난해에 일본사회당중앙집행위원회 이시바시 마사시위원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을 때 그를 환영하는 연회에서 연설하면서 일본의 자주화를 실현하는것은 국제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일본이 대미추종정책에서 벗어 나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면 미국이 아세아에서 혼자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세아에서 공고한 평화가 보장될것이며 인민들은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살수 있을것입니다.

나는 일본의 각계층 인사들과 여러 정당들이 일본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누가 집권하든지 자주화의 방향으로 나간다면 일본은 인민들의 평화위업에 크게 이바지할것입니다.

일본은 경제대국이므로 전쟁을 하지 않아도 살아 갈수 있습니다. 일본이 전쟁을 하면 자체에도 불리합니다. 일본은 섬나라이며 인구밀도가 높습니다. 일본이 전쟁을 하면 일본인민들이 또다시 원자탄의 피해를 입을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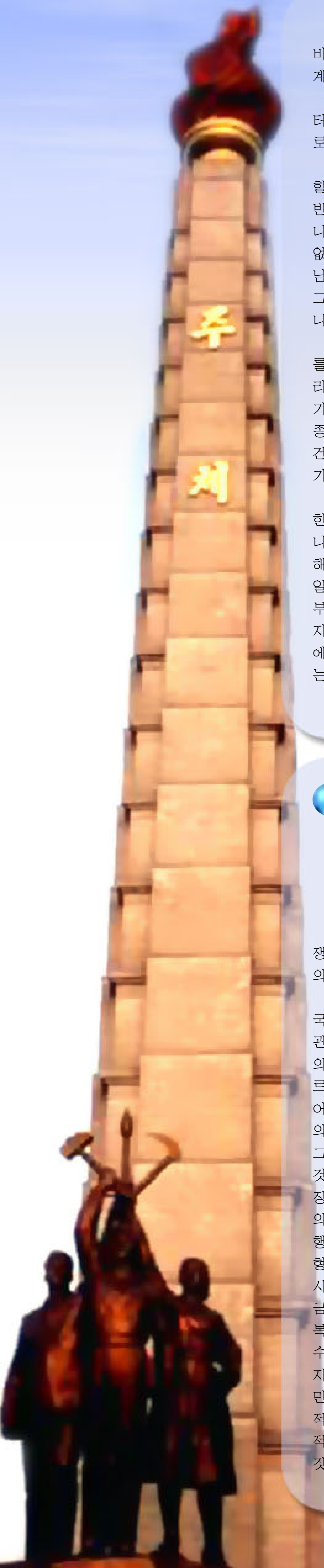
우리는 일본이 앞으로 미국에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주화되면 조선의 통일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일본이 자주화되리라고 기대할수 없지만 점차 자주화의 방향으로 나갈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조일관계문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일본은 바다를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 우리 나라의 이웃입니다. 서로 가까이에 있는 조일 두 나라가 선린관계를 맺는것은 좋은 일이며 그렇게 하는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도 부합되고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위업에도 리롭습니다.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한 대외정책입니다.

조일 두 나라사이의 관계문제에 대한 우리의 원칙적립장은 명백하며 또 시종일관합니다. 조일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일본정부의 태도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건 첫날부터 비록 사회제도는 다르지만 일본과도 선린관계를 맺을것을 희망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본정부는 처음부터 미국과 결탁하여 우리 나라를 비우호적으로 대하여 왔습니다.

일본정부는 우리 나라를 비우호적으로 대할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반대하는 깜빠니야를 벌린 일도 없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일본을 욕하는 연설을 한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정부는 조선의 북과 남에 대하여 일변도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미국의 압력에 굴종하여 그러는것입니다.

얼마전에 일본사회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는데 그때 그들은 나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일본과 경제거래를 하면 어떤가고 하였습니다. 일본정부가 계속 미국에 추종하고 남조선반동들의 압력에 굴종하는 조건에서는 우리 나라와 일본사이에 경제교류가 활발히 진행될수 없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일본에 큰 제철공장을 주문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남조선반동들이 우리 나라에 제철공장을 팔면 북조선의 국력이 강해져 저들에게 큰 위협을 주게 된다고 하자 일본은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그후부터 우리는 일본과의 경제거래에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정부가 우리 나라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살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정부의 비우호적인 태도로 하여 오늘까지 우리 나라와 일본사이에 선린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일 두 나라사이의 관계문제에 대한 우리의 원칙적립장은 명백하며 또 시종일관합니다. 조일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일본정부의 태도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조일 두 나라사이에 우호적인 관계를 이룩하며 나아가서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수립하려면 일본정부가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리고 조선의 통일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정부는 미제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추종하여 조선의 분렬을 고정화하고 영구화하려는 정책을 쓰지 말아야 하며 남조선의 반동들을 도와 주거나 그들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과 전쟁책동에로 부추기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정부는 또한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민족차별정책을 쓰지 말고 인권유린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그들에게 주권국가의 해외공민으로서의 응당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일본정부가 우리 나라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를 버리려면 미국에 추종하지 말고 자주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 일본정부가 일본인민의 의사에 어긋나게 우리 나라를 적대시하고 비우호적으로 대하는 기본요인은 자주성을 잃고 미국의 대조선전략에 추종하는데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미국에 추종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나간다면 조일 두 나라사이의 관계는 개선되고 정상화될것이며 우리 두 나라는 친근한 이웃으로 될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일본인민과의 친선단결을 귀중히 여기고 있으며 일본인민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일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래왕과 접촉, 교류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우리 인민에 대한 친선의 정을 안고 찾아 오는 일본의 각계층 인사들을 벗으로 친절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민들도 조선인민과의 친선을 념원하고 있으며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과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위한 재일조선인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련대성운동을 널리 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로 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 주고 있으며 조선인민과의 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일본의 각계층 인민들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일본인민들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과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위한 재일조선인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조선인민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일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노력에 의하여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는 날을 따라 더욱 발전할것입니다. (내일 계속)

정치사전

제국주의

독점이 지배하며 착취와 략탈, 침략과 전쟁을 주되는 생존수단으로 삼는 마지막단계의 자본주의.

침략과 략탈은 정치와 경제를 포괄하는 제국주의전반의 본질이며 제국주의존립의 객관적법칙이다. 자유경쟁이 지배하던 자본주의는 19세기 70년대에 그 발전이 절정에 이르러 독점이 지배하는 제국주의단계에로 넘어 갔다. 제국주의의 특징은 첫째로, 자본주의의 생산과 집적이 높은 단계에 이름으로써 그것이 경제생활에서 결정적역할을 놀게 된 것이다. 독점의 형성과 지배는 제국주의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특징이다. 그러므로 제국주의를 독점자본주의라고도 한다. 둘째로,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이 유착되여 금융자본이 형성되고 이에 기초하여 금융과두정치가 실시되는것이다. 부르죠아국가의 대내외정책은 금융과두들에게 고률리윤을 보장해 주는데 복무한다. 셋째로, 상품수출과는 달리 자본수출이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이다. 자본수출은 제국주의국가들이 다른 나라 인민들을 착취하고 략탈하기 위한 주되는 경제적수단으로 된다. 넷째로, 자본가들의 국제적인 독점련합이 형성되여 세계를 분할하는 것이다. 여러 나라 독점들은 서로 시장의 분할, 가격정책, 생산의 규모에 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를 경제적으로 분할한다. 다섯째로, 렬강들 사이에서 세계의 령토적분할이 끝나고 재분할을 위한 투쟁이 벌어 지는 것이다. 20세기초에 세계의 령토적분할은 끝났으며 세계의 재분할을 위한 투쟁으로 말미암아 제1차세계대전과 제2차세계대전이 일어 났다. 제국주의단계에서 자본주의의 기본경제법칙인 잉여가치법칙은 독점적고률리윤의 법칙으로 구현된다. 제국주의는 자기 발전의 력사적행정에서 더욱 반동화된 현대제국주의로 변모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제국주의발전의 력사적행정에서 일어 난 변화들과 혁명실천의 풍부한 경험들을 과학적으로 심오히 분석개괄하신데 기초하여 현대제국주의의 주요특징을 밝히시였다. 현대제국주의는 국가독점자본가들에게 최대한의 리윤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정치제도를 파쑈화하고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가장 란폭하게 유린하며 민족해방운동과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투쟁을 반대하는 반혁명적공세를 미친듯이 벌리고 있다. 현대제국주의는 다음으로 신식민주의에 의거하고 있는 제국주의이다. 괴뢰정권을 조작하여 은폐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며 경제≪원조≫를 통하여 새로 독립한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며 나아가서 정치적지배권을 확립하는 것은 신식민주의의 주요수법이다. 현대제국주의는 또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여 종속적으로 재편성된 제국주의이다. 제2차세계대전과정에 막대한 재부를 축적한 미제국주의는 전쟁이 끝난후 다른 제국주의국가들의 세력권을 탈취하면서 자본주의세계의 우두머리로 등장하였다. 자본주의세계의 금융적, 정치적, 군사적 중심이 미국에로 옮겨 갔다. 미제는 제국주의 체계내에서 차지한 우세한 지위를 리용하여 다른 제국주의국가들을 군사경제적으로 종속시키게 되였으며 다른 제국주의국가들은 미제에게 기울어 져 가는 자본주의의 운명을 의탁하게 되였다. 끝으로 현대제국주의는 급속히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최후발악을 하는 제국주의이다. 조선전쟁에서의 패배를 계기로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가 내리막길을 걷게 되자 현대제국주의체계전반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였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전반적위기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섰다는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의 전반적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나라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을 가혹하게 탄압할뿐아니라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을 반대하는 침략과 파괴행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현대제국주의의 최후발악이다. 현대제국주의가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 로동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을 비롯한 반제자주력량의 공동투쟁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이다.

2권 제4장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던 나날에

1. 손정도목사
2. 준엄한 봄
3. 카륜회의
4. 첫 당조직-건설동지사
5. 조선혁명군
6. 혁명시인 김혁
7. 1930년 여름
8. 두만강을 건너
9. ≪리상촌≫을 혁명촌으로
10. 잊을 수 없는 사람들

6. 혁명시인 김혁 (2)

우리의 선이 처음으로 할빈에 뻗치기 시작한 것은 1927년말부터였다. 그 당시 길림제1중학교에서 고학을 하던 몇몇 학생들이 조선민족을 모독하는 강의를 한 반동적인 역사교원과 대판싸움을 하고 나서 할빈으로 들고 뛴 일이 있었다. 그 학생들 가운데는 우리의 지도를 받아오던 류길학우회 성원들도 있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할빈에 가서 조직을 내올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그들은 할빈학원, 할빈고등공업학교, 할빈의학전문학교에 다니면서 조선청년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선인 학우친목회와 독서회를 조직하였으며 이 조직의 골간들로 1928년 가을에는 반제청년동맹 할빈지부를, 1930년대 초에는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할빈지부를 결성하였다. 우리는 방학때마다 한영애를 파견하여 할빈의 조직들을 지도하였다.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이 만주를 휩쓸 때 할빈의 청년학생들이 그에 호응하여 큰 규모의 투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조직들이 은을 냈기 때문이였다. 할빈의 혁명조직들에는 끌끌한 청년들이 많았다. 지금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사업하고 있는 서철동무도 그때 할빈의 공청지부에서 일하였다.

김혁을 책임자로 한 조선혁명군 소조가 도착하였을 때 할빈의 공기는 매우 살벌하였다. 학우친목회나 독서회같은 합법적 조직들까지도 지하에 들어가야 할 형편이였다. 공청을 비롯한 비합법적 조직들은 철저히 자기를 위장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김혁은 할빈동무들과 함께 조직을 지켜내고 조직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도를 토의하였다. 그의 제의에 의하여 이 도시의 모든 혁명조직들은 여러개의 조로 분산되어 지하로 더 깊숙히 들어갔다. 김혁은 무장소조원들과 함께 부두로동자들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카륜회의 방침을 정력적으로 해설하였다. 그는 능숙한 조직적 수완과 담력을 가지고 청년들을 교양하고 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기층당조직을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과 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밀고 나갔다. 적들의 삼엄한 감시망을 피해가며 국제당연락소와의 연계도 지어놓았다.

할빈의 일을 추켜세우는데서 김혁의 공로가 컸다. 그는 혁명의 한개 지역을 담당한 책임자답게 종횡무진으로 활약하다가 할빈도시의 비밀연락소에서 불의에 달려드는 적들과 총격전을 벌이던 끝에 최후를 결심하고 3층에서 뛰어내렸다. 그런데 강철같은 육체가 그의 뜻을 배신하였다. 김혁은 자결에 성공하지 못한채 적들에게 붙잡혀 려순감옥으로 끌려갔다. 그리고 그 감옥에선 모진 고문과 박해에 시달리다가 옥사하였다고 한다.

김혁은 우리 혁명대오에서 백신한과 함께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삶과 젊음을 바친 첫 세대의 대표자의 한 사람이다. 한명의 혁명동지가 천금보다 더 귀중했던 그때 김혁과 같이 훌륭한 재사를 잃은 것은 우리 혁명에 있어서 참으로 가슴아픈 손실이였다. 그가 붙잡혔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며칠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후 나는 할빈에 갔을 때에 김혁의 발자취가 찍혀 있는 거리와 선창가를 하염없이 거닐며 그가 생전에 지은 노래를 입속으로 조용히 불러보았다.

차광수나 박훈과 마찬가지로 김혁도 조선의 진로를 찾아 만리타향을 속절없이 떠다니다가 우리와 손을 잡은 사람이였다. 상해 프랑스조계지의 어느 하숙방에서 남의 눈치밥을 얻어 먹으며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던 그에게 차광수가 편지로 우리에 대한 소식을 알렸다. 상해에서 아까운 인생을 썩이지 말고 길림으로 오라, 길림에만 오면 네가 찾는 지도자도 있고 리론도 있고 운동도 있다. 그래서 김혁이 우리한테로 왔다. 우리와 통성을 한 후 길림시내를 며칠 돌아보고는 내 손을 덥석 틀어잡고 ≪성주, 나는 여기에 닻을 내리겠소. 내 인생은 이제부터요≫라고 말했다. 차광수와 김혁이 막역한 벗으로 된 것은 일본동경유학시절부터라고 하였다.

나는 지금도 공청을 창립하던 날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내셔날≫의 노래를 선창하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그날 김혁은 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 나는 한때 상해에서 중국학생들과 함께 시위에 참가한 적이 있다, 그들이 반일구호를 부르며 행진해나가는 것을 보고 나도 마음속이 동하여 시위대오에 뛰어들었다, 시위가 좌절되면 숙소에 돌아와서 이제는 어떻게 할것인가, 내일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고 혼자서 모대기하였다, 그 어떤 당파나 조직에도 속하지 않은 무소속청년이니 어디에 모이라고 찾는 사람도 없었고 내일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고 지시하거나 의논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시위를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시위를 하다가 맥을 놓을 때 앞으로 나가라고 소리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시위를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내일은 어떻게 하라고 일러주는 조직이 있고 지도자가 있다면 얼마나 힘이 날까, 내가 총탄에 맞아 쓰러질 때 나를 붙안고 ≪김혁아! 김혁아!≫하고 부르며 눈물을 뿌려줄 동지가 있다면 또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그것이 조선사람들이고 조선의 조직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하는 생각을 하였다, 총구를 향해 달려가면서도 얼마나 좋겠는가하는 생각을 하였다. 총구를 향해 달려가면서도 이런 생각이 가슴에 맺혀 내려가지 않았는데 길림에 와서 좋은 동무들을 만나는 행운을 지닌데다가 오늘은 공청에까지 가맹하고 보니 얼마나 떳떳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김혁의 이 말에는 가식이 없었다. 그는 늘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은 좋은 동지들을 찾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 인생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김혁은 ≪조선의 별≫이라는 노래까지 지어가지고 혁명조직들에 보급하였다.

나는 처음에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신안툰에 내려가니 그곳 청년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김혁은 우리 몰래 차광수, 최창걸 동무들과 의논해가지고 길림일대에 그 노래를 보급하였다. 그때 나는 우리를 별에 비기고 노래까지 지어부르는데 대해 아주 엄하게 꾸짖었다.

≪조선의 별≫이 보급되던 그 무렵부터 우리 동무들은 내 이름도 한별이라고 고쳐불렀다. 저희들끼리 이름을 지어가지고는 내 의향에는 관계없이 ≪한별이, 한별이≫하고 불렀다. 한문자로 표기하면 일성(一星), 즉 한별이라는 뜻이였다. 우리 동무들과 함께 내 이름을 **김일성**(金日成)으로 고치자고 발기한 것은 변대우를 비롯한 오가자의 유지들과 최일천과 같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이였다. 이렇게 되어 나는 ≪성주≫, ≪한별≫, ≪일성≫이라는 세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김성주는 아버지가 지어준 나의 본명이였다. 유년시절에는 증손이라고 불렀다. 증조할머니가 생존해 계실 때 나를 증손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 집안 사람들이 그본을 따서 ≪증손이, 증손이≫하고 불렀다. 나는 아버지가 지어준 본명을 무척 귀중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내 이름을 다르게 지어 부르는데 대하여 달가와하지 않았다. 더구나 나를 별이나 태양에 비기면서 젊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추대하는데 대하여 용납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단속하고 설복하여도 소용이 없었다. 동무들은 내가 달가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즐겨 사용하였다. **김일성**이라는 나의 이름이 공식출판물에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1931년 봄 내가 고유수에서 군벌들에게 체포되어 20일가량 감옥생활을 할 때였다. 그러나 그때까지 나를 알고 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전날의 습관대로 나를 그냥 성주라고 불렀다.

내가 동무들속에서 **김일성**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운 것은 훗날 동만에 나와서 무장투쟁을 시작한 다음부터였다. 동무들은 이처럼 새 이름을 지어주고 노래까지 지어부르면서 나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내세웠다. 나를 내세우려는 그들의 성의는 참으로 극진하였다.

내가 나이도 어리고 투쟁경력도 짧았지만 그들이 나를 세우지 못해 그처럼 애쓴 것은 통일단결의 중심도 없이 각당, 각파가 저마끔씩 영웅호걸행세를 하면서 파쟁으로 혁명운동을 말아먹던 전 세대의 운동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나라를 찾자면 2천만 민중이 합심해야 하며 2천만 민중을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게 하자면 영도의 중심, 통일단결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진리를 뼈에 사무치도록 깨달았기 때문이였다.

내가 김혁, 차광수, 최창걸과 같은 사람들을 그토록 사랑하고 잊지 못해하는 것은 그들에 나에 대한 노래를 짓고 나를 지도자로 내세워서가 아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 민족이 그처럼 절절하게 바라면서도 실현할 수 없었던 통일단결, 우리 인민의 자랑이고 영광이며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인 참다운 통일단결의 시원을 열어놓고 우리나라 공산주의운동에서 영도자와 대중의 일심동체를 이룩한 통일단결의 새 역사를 피로써 개척한 선구자들이기 때문이다.

우리와 함께 혁명을 한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은 자리다툼 때문에 대오에 불화를 조성한 적도 없고 의견상이로 하여 우리가 생명으로 내세운 통일단결을 파괴해본 적도 없었다. 통일단결은 우리 대오에서 진짜 혁명가와 가짜 혁명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되어있었다. 그렇게 때문에 그들은 감옥과교수대로 끌려가면서도 이 통일단결을 목숨으로 사수하였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에게 그것을 재보로 넘겨주었다. 그들의 첫째가는 역사적 공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 지도자를 내세우고 그 지도자를 핵으로 통일단결한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넋은 오늘 우리 당이 일심단결이라고 부르는 통일단결을 낳은 위대한 전통으로 되었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지도자를 내세우고 그 지도자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혁명투쟁을 전개한 바로 그때로부터 조선의 민족해방투쟁은 파쟁과 혼란으로 얼룩진 지난날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장을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김혁이 우리의 곁은 떠나간 때로부터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러나 혁명때문에 밤도 새고 배도 곯고 발도 얼구면서 만주의 설한풍속을 헤쳐가던 김혁의 모습은 지금도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가 지금 살아서 우리 곁에 있다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혁명앞에 모진 시련의 고비가 닥쳐올 때마다 나는 지난날 온몸을 애국으로 불태우며 투쟁속에서 젊음을 빛내던 살뜰한 동지 김혁을 생각하며 그가 너무도 일찍이 세상을 떠나간데 대하여 애석한 심경을 금치 못한다.

우리는 후대들에게 김혁의 모습을 영원히 전해주려고 대성산혁명렬사릉 맨 앞줄에 그의 반신상을 세웠다.

김혁이 사진 한 장 남기지 않았고 또 그때 같이 싸우던 동지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다보니 그의 얼굴 모습을 알길이 없었다. 그래서 반신상을 세울 때 우리 조각자들이 수고를 하였는데 김혁의 얼굴 모습은 내가 알려주어 완성하게 되었다. (끝)

일화

군풍의 창조물 - 구월산유원지

1996년 10월 어느 날 **김정일**장군께서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참관도로로정을 따라 구월산에 오르시여 건설장의 여러 곳을 몸소 돌아 보시였다.

어느 한 참관도로에 이르신 그분께서는 절토사면 주변나무들을 한대도 다치지 않고 산릉선을 따낸것을 헤아려 보시고 그것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사실 인민군군인건설자들은 건설에 진입한 첫날부터 명산의 환경을 보호하는것을 첫째 가는 구호로 내세우고 구월산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상할세라 애지중지 관리하면서 건설을 진행하였다.

장군님께서는 그처럼 방대한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명산을 사랑하여 바친 군인건설자들의 수고를 속속들이 헤아려 보시고 구월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병사들만이 할수 있는 아름다운 소행이라고, 조국의 일목일초를 사랑하는 군인들이 참관도로를 건설하였다고 생각하니 구월산의 경치가 한결 더 아름답게 보이는것 같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당과 수령, 조국와 인민에게 끝없이 충직한 이런 군인들을 가지고 있는것을 크나큰 자랑으로, 긍지로 생각한다고, 우리 인민군군인들이 세상에서 제일입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1997년 9월 23일 또다시 구월산유원지를 찾으신 **김정일**장군께서는 건설장의 여러 곳을 돌아 보시다가 ≪지원≫폭포에 이르시여 폭포의 벽과 바닥사이의 콩크리트이음띠에 새겨 진 작은 글발에 주의를 돌리시고 그것을 한자한자 읽어 나가시였다.

인민군건설자들이 ≪미래를 위하여, 고난의 마지막해 1997≫이라고 새겨 넣은 작은 글발이였다.

김정일장군께서는 거기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며

≪2단폭포 옹벽에 ≪미래를 위하여, 고난의 마지막해 1997≫이라고 쓴 글을 보니 새힘이 솟습니다. ≪미래를 위하여, 고난의 마지막해≫, 바로 이 글에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우리 병사들의 참된 인생관과 혁명적랑만의 세계가 그대로 비껴 있습니다.≫

라고 평범한 그 글발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시였다.

그러시고도 확신에 넘치신 어조로 혁명적랑만과 전투적기백에 넘쳐 보다 희망찬 미래를 그려 보며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병사들의 앞길을 가로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힘 주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병사들이 쓴 자그마한 글발 하나에서도 그들이 지닌 혁명적랑만의 세계를 읽으시고 높이 평가해 주시는 **김정일**장군의 크나큰 믿음에 떠받들리여 인민군병사들은 짧은 기간에 100여Km의 도로공사와 274개의 구조물공사, 30여Km의 안전연석공사, 13만여㎥의 옹벽쌓기공사, 27개의 정각 및 부감대건설공사, 227개의 각종 표식물 및 조각설치공사, 51개의 명소들에 대한 건설공사, 유원지내부망공사를 비롯한 수많은 어렵고 방대한 작업량을 해제낌으로써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결사관철하는 혁명적투쟁기풍을 과시하였다.

김정일장군께서는 1997년 9월 인민군군인들에 의하여 훌륭히 꾸려 진 구월산을 또다시 돌아 보시였다.

장군님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의 땀이 깃든 구월산의 곳곳을 다 돌아 보시면서 조국과 민중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안고 온갖 지혜와 정성을 다 바쳐 구월산유원지를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꾸린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감사를 주시였다.

그분께서는 민중들이 구월산에 와서 마음껏 레저를 즐길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마련해 주는 문제, 등산로정을 등산객들의 체력을 튼튼히 단련할수 있게 잡는 문제,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 조건에서 환경관리를 잘하여 구월산의 아름다운 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데 관한 문제 등 구월산유원지를 더 잘 꾸리고 관리운영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또한 구월산에 보존되여 있는 태엽사, 월정사, 구월산성터 등 문화유적들을 잘 보존관리하여 그를 통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구월산을 비롯한 명산들에 대한 소개선전을 널리 벌릴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그처럼 어렵고 고난한 시기에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상상조차 못했던 구월산을 민중의 유원지로 꾸리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것은 **김정일**장군의 숭고한 민중애와 민중의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그분의 불면불휴의 로고가 낳은 결실이며 자기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면 산도 옮기고 바다도 막아 무조건 관철하려는 철석의 의지를 지닌 인민군군인들의 혁명적군인정신이 높이 발휘되였기때문에 가능한것이였다.

송가

꽃의 왕

신열정

누구나 다 보라고
흉모르고 보란듯 안고가네
세상 진귀한 보물처럼
두손에 높이 받들고 가네

해마다 꽃축제 열리는 중국 단동꽃집에서
내 고이 안고온 꽃무
2월의 하늘아래 붉게 피었네
아 - 태양의 꽃 **김정일**화

시원스럽고 황홀한 꽃송이
이글거리는 불덩이인가
우리 가슴 위인숭배열기로
세차게 끓게 하네

푸른 잎새와 억센 줄기
백두장군 기상과 담력을 이야기하고
그 닮은 꽃향기 애족애민의 광폭정치 펼치시는
장군님사랑 전하여주네

누구나 한번 보면 마음이 커지고
정신이 번쩍 드는 꽃
금시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나올 듯
짙은 정서를 안겨주는 꽃

그래서 지나는 길손들 눈길 떼지 못하리
따라선 젊은이 속삭이는 소리
≪과시 **김정일**화는 꽃의 왕이야!≫
암 그렇구 말구
세계 원예박람회에서 최고상을 받은 꽃
절세위인 존함 모시어
온 사람 사랑하는 태양화

내 마음 하늘가에
언제나 이것을 받들고 갈꺼야
이 땅의 평화를 지키고 통일아침 여시는
장군님 우러러 이남 민중 살꺼야

오! 서울장안 밝히며 불타는 **김정일**화
이남 민중 우러르는 이상의 꽃
장군님 태양상 그대로 닮은
천세의 명화야 이 세상 꽃의 왕이야

흠모

주체사상과 김정일동지의 대외정책

≪주체사상과 **김정일**동지의 대외정책≫이라는 제목의 련합토론회가 로씨야 주체사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 경제, 문화협회, 로씨야 현세계에서의 인간문제연구학자련맹의 공동주최로 11일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였다.

로씨야 현세계에서의 인간문제연구학자련맹 위원장 알렉싼드르 꼬왈료브는 토론회에서 한 발언에서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고 계시며 그 어느 나라 국가지도자도 생각 못하는 독특하고도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심으로써 높은 국제적권위를 지니고 계신다고 말하였다.

김정일동지의 권위는 우리 로씨야인민들속에서 매우 높다고 하면서 그는 앞으로 로씨야에서 주체사상과 그이의 정치방식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대렬이 더 많이 늘어 나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로씨야 주체사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 경제, 문화협회 위원장 유리 와닌, 로씨야≪공산주의자동맹≫당 중앙위원회 비서 울라지미르 마르꼬브를 비롯한 여러명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주체사상과 **김정일**동지의 독창적인 대외정책으로 하여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무대에서 가장 존엄 있는 국가로 인정 받고 있다고 말하였다.

최근년간 미국이 조선인민에게 식량과 물자들을 주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은 조선이 자기들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김정일**동지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의 결과에 이룩된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지금 미국대통령 부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하여 적대시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도 결국에 가서는 자기의 선임자처럼 **김정일**동지의 정치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안되게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최근년간 **김정일**동지께서 진행하신 정력적인 대외활동은 세상사람들로 하여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어떤 나라이고 얼마나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있는가를 똑똑히 알수 있게 하였다고 하면서 그이의 로씨야방문때처럼 세계의 모든 출판보도물들과 사람들이 그이의 방문 매 로정에 대하여 보도하고 떠든 례는 일찌기 없었다고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정일**동지의 독창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세상에서 가장 위력한 군대와 인민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 순종하는것이 아니라 그 나라들을 움직여 나가는 정치의 대국으로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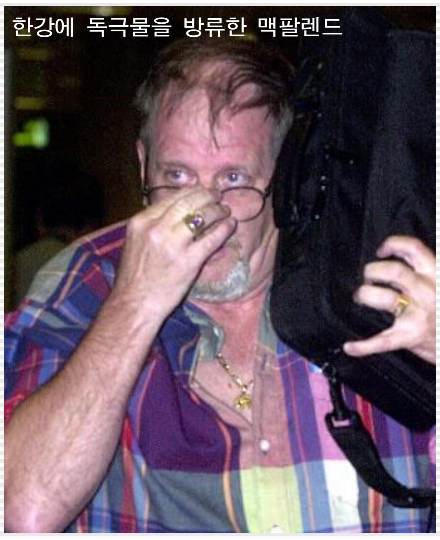
(조선중앙통신 주체91, 3월 18일)

주한미군, 한강독극물방류사건 관련자 신병인도요구 또다시 거부

이미 보도된 것처럼 법무부는 지난 16일 서울 지방법원의 요청에 따라 한강독극물방류사건 책임자인 주한미군 영안실 소장 피고인 맥팔랜드의 신병을 한국정부에 넘길 것을 요구했지만 주한미군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한국 형사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을 깔보고 멸시하는 양키침략자들의 오만방자한 태도에서 비롯된 또하나의 용납못할 적대행위가 아닐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강독극물방류사건으로 말하면 지난 2000년 2월 미8군 용산기지에서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 연계된 하수구를 통해 대량 무단방류한 사건입니다.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한 맥팔렌드

한강이 우리 국민의 생명수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우리 국민의 명줄이 걸려 있는 생명수에 독극물을 마구 쏟아붓고도 이에 대해 응분의 사죄와 보상을 할대신 그 범죄자 신병인도마저 거부하면서 형사재판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며 우리 국민을 심히 모독해나섰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한 모욕과 멸시가 없다하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식민지지배가 가져온 필연적 귀결입니다.

바로 미국의 식민지지배하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양키침략자들의 멸시행위는 그 어느 하루도 그칠새 없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 땅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있는 양키무리들은 우리 국민을 오리로, 들쥐로 모독하면서 과녁의 상대로 삼아 무참히 학살하고 우리 여성들을 노리개로 치부하며 강간, 살인, 폭행만행을 일삼는가 하면 이 땅의 120여곳에 8000여만평에 달하는 지역에 군사기지들을 설치하고 각종 폐기물들을 마구 내버리면서 우리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내걸고 범죄자처벌은커녕 응분의 사죄와

보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한강독극물방류사건과정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같은 사실들은 주한미군이야말로 이 땅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모든 범죄의 주범일뿐 아니라 우리 국민에 대한 멸시와 인간증오사상이 꽉들어찬 가장 극악한 ** 주의자들이라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언제까지나 미국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양키침략자들의 온갖 수모와 멸시만을 감수하며 살 수 없습니다.

국민여러분은 주한미군에 의해 이 땅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이같은 철면피한 강도적 행위들을 똑바로 보고 거족적인 주한미군철수투쟁으로 불행과 고통의 화근을 없애야 할줄로 압니다.

미국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저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응분의 사죄와 보상을 해야하며 범죄자들의 신병을 인도하고 이 땅에서 주한미군을 하루빨리 철수시키는 것이 좋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18일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3월 18일

김정일영도자님, 러시아 명절모임에 초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러시아의 전통적인 민속명절인 사육제(봄명절)에 즈음해 이북주재 러시아연방 특명전권대사의 초청에 따라 3월 17일 그가 마련한 명절모임에 초대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을 이북주재 러시아연방 특명전권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책임일군들이 영접했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 가장 귀중한 손님을 맞이할 때의 풍습대로 민족의상을 한 대사관의 남녀성원들과 어린이들이 민족기악반주에 맞춰 민요를 부르면서 축하를 인사를 드리고 술과 지짐을 대접해 올렸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초청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시고 사육제를 맞는 대사관 성원들을 열렬히 축하하셨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을 위해 특명전권대사는 이날 만찬을 차렸습니다.

만찬회에서는 대사관어린이들이 특별히 준비한 예술소품공연이 있었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공연에 출연한 어린이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셨습니다.

차세대전투기도입중단 요구

민주노동당과 민족화해자주통일협회는 15일 국방부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차세대전투기도입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자통협 홍근수상임대표는 회견문을 통해 남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시기에 전쟁무기를 끌어들이는 것은 통일의 기운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국방부가 차세대전투기도입 자체를 백지화할 것과 전투기기종을 둘러싼 국방부의 강압내용을 폭로한 조주형대령의 즉각 석방 등을 요구했습니다. 자통협의 서경원상임고문은 국방부가 미국과의 작전운용능력을 구실로 ≪F15K≫를 도입하려 하지만 미국은 우리 국민의 안보와 생명을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라 50여년전 이 땅을 갈라놓은 나라라면서 모두가 미국의 실체를 똑바로 알아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방부는 무기도입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6.15공동선언이행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회견이 끝난 다음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항의서한을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대학생들, 반미투쟁에 더욱 과감히 나설 것을 다짐

3.18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20주년에 즈음해 대학생들이 반미투쟁에 더욱 과감히 나설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3학년 김모군은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정당하고 의로운 투쟁이였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미국의 식민지통치에 종지부를 찍지 못했다. 미국은 우리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한국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더욱 강화할뿐만 아니라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부시행정부의 엄중한 핵전쟁도발책동을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우리 민족은 통일은커녕 핵전쟁의 희생물이 되고 말 것이다. 핵전쟁의 먹구름이 시시각각 밀려오는 현실은 우리 청년학생들이 반미투쟁에 더욱 용맹스럽게 일어나 미국놈들을 이 땅에서 몰아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학생들은 부산미문화원에 불을 질렀던 선배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불구대천의 원수 미국놈들에게 철퇴를 안기고 축출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갈 것이다.≫

또 고려대학교 4학년 이모군은 현실은 당시 선배들이 어째서 미문화원에 불을 질렀는지를 가르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놈들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루려는 것을 저지시키기 위해 남북대결을 부추기다못해 이제는 핵전쟁을 도발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미군이 이 땅을 강점하고 50여년간 감행한 온갖 만행을 저질러 온 것을 생각하면 치미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다.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전국민이 들고일어나 놈들을 모조리 박살내야한다. 피의 댓가를 받아내야 한다. 우리 청년학생들이 이 투쟁에 앞장서겠다.≫

한양대학교 2학년 최모군은 반미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다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군이 이 땅을 강점하고 있는 한 통일을 이룰 수 없다. 남북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것도 다 미국의 방해책동때문이다. 반세기가 넘도록 미국이 이 땅을 강점하고 있는 것은 정말 국민의 수치이다. 더이상 양키들의 군화발밑에서 갖은 수모를 당하며 살 수 없다. 지난번 부시방한반대투쟁에서 보여준 반미기운을 더욱 높여 전국민이 미국축출투쟁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악담을 늘어놓은 이회창 규탄
조평통 서기국 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최근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이 일본을 행각하면서 이북을 중상모독하는 악담을 늘어놓은 것과 관련해 16일 이를 규탄하는 서기국보도 제816호를 발표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보도는 이회창이 얼마전에 일본에 가서 이북을 중상모독하는 악담을 늘어놓은데 대해 지적하고 이 모든 험담질은 민족반역자, 친미친일 이중주구로써의 그의 더러운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놓은 것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는 이회창은 원래 일제의 주구였던 애비로부터 역적의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은 극악한 친미분자이며 미국을 할애비처럼 섬기는 특등친미매국노라면서 지난 1월 이회창이 미국상전을 찾아가 동족을 모해압살해줄 것을 청탁하고 미국의 대북전쟁책동에 맞장구를 치는 행위를 서슴지 않은데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보도는 이번에 이회창이 일본에 갔다온 것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2의 상전을 찾아가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팔고 반북열을 올리는 댓가로 외세의 지지를 얻어 권력의 자리를 차지해보려는 비열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보도는 존엄높은 이북의 정치체제를 함부로 걸고 들고 이북을 악랄하게 중상모독한 자들은 그러한 행위가 이제 얼마나 비싼 댓가를 치루게 되는가를 똑똑히 알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위험한 북침전쟁책동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남의 반통일호전분자들은 끝내 이 땅에서 대규모의 한미합동전쟁연습을 벌여놓으려고 책동하고 있는데요. 이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바라고 있는 우리 민족에 대한 용납못할 악랄한 도전이라고 할겁니다. 임기수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방해자인 미국이 국군과 함께 이 땅에서 대규모 한미연합전쟁연습을 벌이려고 하고 있어 지금 각계 국민들의 강력한 항의, 규탄, 배격을 받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2월 28일 한미연합사령부는 지금까지 해마다 별도로 진행돼온 연합전시증원훈련과 독수리훈련을 통합해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어요. 이건 매우 심상치않은 군사적 움직임입니다.

지금 미국대통령 부시는 이북을 악의 축이라고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반북적대시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북적대시정책으로해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행에 커다란 제동이 걸려있고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가 대결의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으며 민족자주통일의 앞길에는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미군과 국군이 이북을 반대하는 대규모 한미연합전쟁연습을 공공연히 벌이기로 한 건 미국이 이북과의 관계에서 위험한 군사대결로 나오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로 됩니다.

미국이 이번에 통합해 진행하려는 연합전시증원훈련과 독수리훈련으로 말하면 철두철미 북침전쟁연습입니다. 먼저 연합전시증원훈련으로 말하면 전쟁이 발발했을때 해외에서 증원되는 병력과 장비를 수용하는 지휘능력을 훈련시키고 평가하기 위한 군사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는 경우 미국본토, 일본 그리고 괌도 등 해외로부터 대규모 미군이 한반도 포항으로 도착하는데 그때 이 증원된 병력과 장비들을 한시에 전방전선까지 효과적으로 조직해 보내기 위한 훈련입니다.

또한 독수리훈련도 이북을 침략하기 위한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입니다. 이 훈련에는 미군 수만명을 포함해 한미연합군 5000만명이상이 참가하게 됩니다.

미국이 이런 두개의 군사훈련을 이번에 통합해 실시하기로 한 건 한반도에서 기어이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데 있습니다. 더욱이 엄중한 것은 이북을 악의 축이라고 망언한 부시가 한국행각후 이런 대규모 한미연합전쟁연습을 벌이려는데 그 엄중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부시의 한국행각이 내외가 인정하는 것과 같이 북침전쟁준비를 최종확인하기 위한 전쟁행각이였으며 이번 전쟁연습은 힘으로 이북을 압살하려는 미국의 책동이 실전단계에 들어섰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의 일방적인 승리로 기고만장해진 부시정권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한반도에서 새전쟁의 무대를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북은 아프가니스탄도 아니며 유고슬라비아나 이라크도 아닙니다. 이북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수치스러운 참패를 미국에 안긴 영웅의 나라입니다. 미국이 이것을 망각하고 한반도에서 새전쟁을 일으킨다면 6.25전쟁때보다 더 큰 참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이북을 침략하려는 무모한 짓을 버리고 반북적대시정책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각계 국민들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자는 6.15공동선언이행을 방해하고 우리 민족의 머리위에 핵전쟁의 참화를 덮씌우려는 미국의 전쟁연습책동에 경각심을 높이며 이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반미반전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의 악의 축망발로 한반도정세가 긴장해질대로 긴장해진 때에 대규모 북침전쟁연습을 벌이려하는 미국이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재난만을 덮씌우려는 피맺힌 철천의 원수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미, 반부시, 반전투쟁에 한사람같이 나서야겠죠.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13일~15일

그날의 반미투쟁정신 더욱 승화시켜나가자

의로운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이 있은 때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미국 나가라!≫, ≪미국의 신식민주의를 규탄한다!≫ 등의 반미삐라들을 뿌리며 반미투쟁을 벌인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의 투쟁정신은 오늘도 우리 청년학생들과 민중의 가슴속에 살아있습니다.

미국의 식민지통치 50여년,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이 있은 때로부터 20년. 그 기간 애국적인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민중은 어느 하루도 반미투쟁을 멈추지 않고 양키는 제집으로 돌아가라, 미국의 식민지강점을 끝장내자, 주한미군철수, 핵무기철거 등의 반미구호를 외치며 줄기찬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처럼 바라던 염원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우리 민중은 의연히 미국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온갖 불행과 고통,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시미행정부출범이후 미국의 신자유주의경제정책으로 인해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층 근로민중은 보다 암담한 처지에서 인간의 천부적 권리마저 무참히 짓밟힌 채 노예적 운명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장구한 기간 실지 생활체험을 통해 미국이야말로 벗이 아니라 원수이고 원조자가 아니라 약탈자이며 우방이 아니라 침략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우리 민중입니다. 하기에 오늘도 애국적인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민중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평화와 통일의 걸림돌이고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반미투쟁을 줄기차게 벌이고 있는 겁니다.

최근 미국대통령 부시의 방한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부시방한반대, 무기강매반대, 대북강경정책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미상공회의소점거와 미대사관기습시위와 같은 격렬한 반부시반미투쟁을 과감히 벌인 것은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민중의 반미투쟁의지가 얼마나 강렬한가 하는걸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미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민중이 찾은 피의 교훈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식민지통치를 종식시키는 것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청이고 우리 민중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20년전에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에 나섰던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민중은 20년전 그들의 투쟁정신을 더욱 승화시켜 반미투쟁을 보다 힘차게 과감하게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각계층 민중은 미국의 대한반도전략과 대북적대시정책, 반북고립압살책동을 예의주시하고 이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지금 미국은 군사적 힘으로 북을 제압하고 나아가서는 아시아와 세계를 제패하려고 태평양아시아전략, 대북강경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반북고립압살책동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민족공멸의 위기국면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것은 명명백백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각계층 민중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반북고립압살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반미반전투쟁을 줄기차게 벌여 북침전쟁의 위험을 사전에 가로막음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당면해서는 미국의 주도하에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벌이게 되는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하는 것과 함께 지난 8일 부시정권이 미의회에 제출한 ≪핵태세검토≫라는 비밀보고서에서 북 등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계획했다는 핵전쟁기도를 분쇄하기 위한 반미반전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을 차단하고 남북사이에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며 국민들속에서 날로 높아가는 민족의 자주통일기운을 압살하려는 미국의 반통일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반미자주통일운동을 줄기차게 벌여나가야 할겁니다.

반미반전, 조국통일운동은 외세침략과 전쟁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지켜내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의롭고도 성스러운 투쟁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고 조국의 자주통일을 바라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해서 모든 계급계층과 모든 단체들은 반미반전, 통일운동에 적극 나서야 하며 단결된 힘으로 서로 연대연합하고 공동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반미반전, 통일운동을 거족적으로 벌여나가는 여기에 미국의 침략과 북침전쟁책동, 민족의 영구분열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길이 있으며 바로 이것은 20년전 그날의 애국적인 청년학생들과 민중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내정간섭책동을 반대배격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여나가는 것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가장 절박한 과제입니다.

부시미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우익보수세력을 규합해서 친미정권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미군영구주둔을 획책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미국의 내정간섭반대, 주한미군철수의 구호를 더욱 높이 치켜들고 이 투쟁을 거족적으로 벌여나가야 할겁니다.

각계층 민중은 시대의 요청과 온 국민의 일치한 요구에 부응하여 이 땅에서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감으로써 민족의 자주통일을 앞당겨 실현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해야 할줄로 믿습니다.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17일~18일

부산미문화원방화 사건과 이회창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이 땅의 반미운동사에 커다란 자국을 남긴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20년 세월이 흘렀는데요. 이 날을 맞으며 우리 민중은 예나 지금이나 미국은 여전히 우리 민족의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라는 걸 절감하면서 열혈 청년들의 애국적 장거의 당위성에 대해 다시금 뜨겁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부산미문화원에 분노의 화살을 터친 애국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주인사 등 그 관련자들이 군사독재집단의 파쇼적 탄압만행으로 처형을 비롯한 중형을 선고받고 부당한 옥고를 치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회창이 법관의 감투를 쓰고 사건처리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 얘기 나눠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같이했는데요. 그럼 먼저 부미방사건으로 알려진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의 배경이라고 할까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김현규 : 당시 이 땅에서는 미국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이 더욱 노골화됐고 특히 광주민중항쟁을 계기로 미국은 전두환군사독재집단을 사주해 광주시민을 무참하게 학살했습니다. 우리 민중은 광주학살을 막후조정한 미국에 대한 원한이 구천에 사묻혀 있었습니다.

또 미문화원은 우리 민중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고 이 땅에 대한 사상문화적 침투를 직접 집행하는 시설물로써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으로 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친미군사독재집단에 대한 분노가 부미방사건의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동기로부터 부산미문화원에 대한 방화를 단행한 것은 바로 1982년 3월 18일 오후였는데요. 그때 열혈청년학생들에 의해 미문화원에 삼단같은 불길이 치솟아 올랐고 잇따라 미문화원으로부터 800미터가량 떨어진 국도극장과 미문화원과 인접한 유나백화점 6층에서는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지 말고 물러가라는 등의 반미구호와 군사독재집단을 단죄하는 유인물들이 대량 뿌려졌습니다.

불과 20여분동안에 수행된 부산미문화원에 대한 방화는 우리 민중의 반미감정에 더 큰 불씨를 심어주었고 지구촌에도 커다란 충격파를 주었습니다.
사회자 : 이 반미투쟁의 불길을 통해서 우리 민중은 미국의 식민지예속민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일어나 싸워야한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광주학살을 단행한 군사독재집단과 그것을 막후조정한 미국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려는 불굴의 의지를 내외에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군사독재집단은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관련자들을 전원체포구속했고 살인적인 재판까지 벌였습니다. 특히 이 살인재판에 당시 법관의 감투를 썼던 이회창이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이 매우 주목되는 것이 아닐까요.
김현규 : 그때 이회창은 대법원상고심재판관으로 이 재판에 직접 관여했는데요. 이회창은 그때 김현장, 문부식, 김은숙 등 부미방사건관련자들에게 악명높은 국가보안법에 걸어 사형을 비롯한 극형과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판결문을 보더라도 그가 부산미문화원방화관련자들을 극형에 처하기 위해 얼마나 악질적으로 놀았는가 하는 걸 잘알 수 있습니다.

이회창은 그때 판결문에서 광주학살의 장본인인 미국을 비호두둔하고 북에 대해서는 가장 호전적이라느니 뭐니하는 험구를 늘어놓았는가 하면 애국청년들의 자의적인 소행을 북과 억지로 연결시키며 북을 이롭게 했다는 억지주장을 폈고 우리 민중의 반미감정을 외면하고 그들을 악명높은 국가보안법에 걸어 극형에 처했던 겁니다.

이것만봐도 이회창은 그때 벌써 극악한 파쇼분자, 친미사대매국노로써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당시에 부미방사건관련자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각계 민중의 목소리가 비상히 높았고 석방투쟁도 가열차게 벌어졌습니다. 또 변호인측에서는 그들이 젊은 나이인데 극형에 처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반발했어요. 하지만 이회창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사형과 중형을 마구 선고했던 겁니다. 이건 그때 벌써 이회창이 친미군사독재집단에 법관의 감투를 쓰고 기생한 친미사대매국역적이라는 걸 웅변하고 있죠.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서 부당하게 옥고를 치루던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관련자들이 지금은 대체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미방사건이 끝난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결코 우연한게 아닙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부미방사건처리를 주관하면서 열혈청년들과 민주인사들에게 극형과 중형을 선고했던 이회창이 정계에서 용꿈을 꾸며 활개치고 있으니 어떻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회창은 부미방사건처리에서 자기의 범죄를 가리우기 위해 비열하게 책동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김현규 : 그렇습니다. 이 사건처리를 맡았던 이회창에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어느 한 언론사의 기자들이 문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새삼 과거사건을 들출 필요가 무엇이냐, 기억나지 않는다하며 마치 치매증환자처럼 놀았다는 겁니다.

지금 각계 국민들속에서 부미방사건의 진상을 밝히라는 요구가 거세게 대두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지만 그 어떤 오그랑수로도 이회창은 결코 자기의 범죄행위를 가리울 수 없습니다.

지금 경향 각지에서 반미투쟁과 함께 반이회창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것도 이회창의 비도덕성과 저열성, 반민족성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회자 : 그렇습니다. 각계 민중은 미국에 아부아첨하며 우리 민중에게 독재의 칼날을 마구 휘둘러온 이회창과 같은 매국역적을 정계에서 가차없이 제거해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나가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사회자 : 미국상전의 힘을 빌어 대권을 쥘 야망을 꿈꾸고 있는 이회창은 지금 부시의 악의 축 망발에 맞장구를 치며 민족반역행위를 일삼고있습니다. 이런 반민족, 반통일역적이 절대로 권좌에 앉지 못하게 해야하겠죠.

대담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17일~18일

반민족망언을 늘어놓은 이회창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일본을 행각중인 이회창은 고이즈미와 만난 자리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이산가족교환방문이 북의 일방적인 태도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느니 북이 신뢰가 없다느니 하고 줴쳐댔습니다.

심지어 이회창은 부시의 악의 축발언에 이해를 표시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북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경보였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친미사대매국근성이 골수에까지 밴 추악한 민족반역자의 넋두리로써 민족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국민과 온 겨레에 대한 악랄한 도전입니다.

지금 각계에서는 이회창의 이같은 민족반역적 작태에 치솟는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6.15공동선언이행에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때문입니다.

미국 부시정권은 출범후 이북을 제1주적으로 선포하고 대북강경정책을 실시하면서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의 앞길을 가로막아 나섰습니다.

미국의 이같은 책동에 맞장구를 치며 온갖 못된 짓을 다해온 것이 바로 이회창일당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남북간의 대화와 왕래가 진통을 겪고 교류와 협력이 무산됐으며 이산가족들의 상봉마저 암초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회창이 미국의 편에 서서 이북을 터무니없이 걸고 들며 악의에 찬 비방을 일삼았으니 이보다 더 미국의 충견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회창이 부시의 악의 축발언을 비호두둔해 나선 것입니다.

부시의 이북에 대한 악의 축망발은 우리 민족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침략도발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물론 온 겨레와 국제사회가 부시의 악의 축망발을 두고 단죄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회창이 반북적인 악담을 써가며 부시의 악의 축망발을 노골적으로 비호두둔해 나선 것은 그의 체내에 민족의 피가 아니라 매국배족의 검은 피가 흐르고 있고 그의 안중에는 민족의 평화통일이 아니라 일신의 더러운 집권욕만이 들어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대매국노들이 적지 않았지만 우리 국민은 이회창과 같이 그렇게 악질적으로 동족을 걸고 들며 미국 상전에 추파를 던진 사대매국역적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회창이야말로 역적중의 역적이고 매국노중의 매국노입니다.

가소로운 것은 이회창이 마치도 제가 대통령이 다된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면서 이따위 민족반역행위를 일삼은 것입니다. 얼마전에는 미국 양키를 찾아가 미상전의 대북강경정책 각본을 되받아 외우며 미친듯이 줴쳐대더니 오늘은 또 일본 쪽바리들을 찾아가 발바닥을 핥으며 동족헐뜯기에 광분하고 있으니 이회창의 행위야말로 온 국민과 민족의 버림을 받은 제 주제도 모르고 동분서주하는 얼간망둥이의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족의 운명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이 사대매국에 미쳐 돌아치는 이회창이 권좌에 올라앉으면 6.15공동선언이 백지화되고 우리 민중은 핵참화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전 국민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도 극악한 사대매국노 이회창을 가차없이 제거해버려야 할겁니다.

감사합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12일~13일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3월 18일

김정일총비서 명절모임에 초대
조선주재로씨야대사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로씨야의 전통적인 민속명절인 사육제(봄명절)에 즈음하여 조선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의 초청에 따라 17일 그가 마련한 명절모임에 초대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김용순비서들, 외무성 강석주제1부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장성택제1부부장과 지재룡 국제부 부부장이 동행하였다.

김정일령도자를 조선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안드레이 겐나지예비치 까를로브를 비롯한 대사관책임일군들이 영접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 가장 귀중한 손님을 맞이할 때의 풍습대로 민족의상을 한 대사관의 남녀성원들과 어린이들이 민족기악반주에 맞추어 민요를 부르면서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술과 지짐을 대접해 올리였다.

그이께서는 초청해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고 사육제(봄명절)을 맞는 대사관성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를 위하여 특명전권대사는 이날 만찬을 차리였다.

이채로운 만찬회는 흥겨운 명절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만찬회에서는 대사관어린이들이 특별히 준비한 예술소품공연이 있었다.

귀여운 어린이들이 성의껏 마련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공연에 출연한 어린이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직총중앙위원회 47차전원회의 진행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제47차전원회의가 17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는 직총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 중앙과 지방의 직맹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기 위한 직맹조직들의 과업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직총중앙위원회 렴순길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것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고 백두령봉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라고 지적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직업동맹이 지난 기간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에 대하여 지적하고 모든 동맹원들이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 적극 떨쳐 나서도록 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제기하였다.

침략전쟁연습을 당장 걷어 치우라
농근맹중앙위원회 성명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는 17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에서 벌려 놓으려는 이번 합동군사연습을 그 규모와 성격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것처럼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준비를 최종단계에서 완성하고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계획적인 북침전쟁소동으로 락인하였다.

성명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우리 농민들의 희망과 장래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 농민들은 조국땅이 가증스러운 미제원쑤들의 침략전쟁터로 되여 황폐화되는것을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벌려 놓으려는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걷어 치우고 자기의 침략군대와 대량살륙무기를 무조건 철수해야 한다.

만약 미제와 그 주구들이 끝끝내 이 땅에서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전쟁이 미국에 있어서 종말을 고하는 전쟁으로 되게 할것이다.

우리는 남조선의 모든 농민들이 로동자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과 련대련합하여 우리 나라 강토와 민족을 초토화하려는 안팎의 호전광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반대하여 반미반전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 나서리라고 굳게 믿는다.

조미대화의 근본기초는 허물어 졌다

≪로동신문≫ 18일부는 우리의 제도변경을 운운하는 부쉬행정부와는 상종할 생각이 없다는것을 밝힌 우리의 주장은 우리 식의 사회주의제도를 옹호하고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해 내린 혁명적이고 단호한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부쉬행정부가 우리 체제를 전면거부해 나섬으로써 조미대화의 근본기초를 허물어 버린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다음과 쓰고 있다.

부쉬가 우리의 정치제도를 걸고 들면서 정권변경을 들고 나온것은 우리 공화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것이며 그것은 사실에 있어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파괴하겠다는 소리이다. 부쉬행정부가 떠드는 대화타령은 말로만 ≪전제조건≫이 없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는 대화≫이지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더러 체제와 무장을 포기하고 나오라는것으로서 절대로 접수될수도 없고 용납될수도 없는 강도적론리이며 우리에 대한 기만우롱이다. 우리는 부쉬의 대화타령을 우리 인민의 생명선을 끊어 놓으려는 제도압살, 전쟁폭언으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 부쉬행정부는 우리와의 회담문제를 론하기에 앞서 우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제도변경을 떠든 용납못할 범죄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그 후과에 대한 처리부터 똑똑히 해야 할것이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해 모든것을 다할것이지만 결코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 당하면서까지 그것을 구걸할 생각은 없다. 우리 인민은 그 누구의 압력이나 전쟁책동에 겁을 먹고 원칙을 양보하거나 뒤로 물러 설 인민이 아니다.나라의 최고리익을 위한 길에서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질이다.

부쉬행정부는 우리의 정치제도와 정치리념을 제거말살하려는 저들의 망동이 죽음의 함정에 빠져 드는 행동으로 된다는것을 알고 분별 있게 처신하는것이 좋을것이다.

태양절기념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중국 료녕성국제우호련락회, 인디아대외정책연구소와 인디아주체사상연구회, 전인디아조선친선협회에서 친선모임과 기념집회, 강연회, 영화감상회, 사진전시회가 2월 21일부터 3월 9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혁명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여 있었다.

중국 료녕성 국제우호련락회 부회장은 친선모임에서 한 연설에서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 올리신 위대한 분이시라고 지적하였다.

인디아 대외정책연구소 국장은 기념 집회에서 한 연설에서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조선인민과 인류의 운명개척에서 세기적인 변혁이 일어나게 하였다고 하면서 진보적인류는 주체사상을 20세기뿐아니라 21세기에도 진보와 번영, 행복의 길을 밝혀 주는 불멸의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열병식 및 군중시위≫를 비롯한 조선영화들이 상영되였다.

인디아 대외정책연구소에서 진행된 기념집회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 드리는 전문이 채택되였다.

한편 3월 6일 우간다 캄팔라시 키탄테인민학교 **김정일**학급에서는 태양절기념노래모임이 진행되였다.

배움의천리길 학생소년궁전

배움의천리길학생소년궁전은 조선의 자강도 강계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학생소년들의 과외활동의 거점인 이 궁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신 50돐이 되는 주체62(1973)년 3월 16일에 창립되였다.

배움의 천리길은 주석께서 열두살 나시던 해인 주체12(1923)년 3월 16일부터 29일까지 조선의 현실을 잘 알기 위해 중국의 장백현 팔도구로부터 평양의 만경대까지 걸으신 천리길을 말한다.

궁전의 부지면적은 8, 500평방메터이고 건평은 4, 800평방메터이다.

주석의 동상을 모신 궁전에는 학생소년들의 과외활동을 위한 근 80개의 연구실과 소조실이 있다.

또한 500개의 관람석을 가진 극장과 수만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실이 있다.

이곳에서는 하루에 2, 500여명의 학생소년들이 다채로운 과외소조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영화창작

조선에서 아동영화들이 많이 창작되고 있다.

올해에 들어 와서만도 아동영화 ≪토끼형제와 승냥이≫ 제2부 ≪둘째토끼가 받은 스키≫, ≪방울소리≫ 제4부 ≪빌려 단 방울≫, ≪원쑤를 갚은 옥돌이≫ 등 여러 편의 영화들이 나왔다.

창작된 아동영화들은 형식과 형상수법, 기교들이 새로와 시청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아동영화들은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에서 제작되고 있다.

주체46(1957)년 9월에 창립된 촬영소에서는 지난 기간 수많은 영화들을 창작 및 제작하였다.

최근 년간에만도 수백편의 아

동영화가 제작되였다.

촬영소에서는 주체74(1985)년부터 이딸리아,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합작, 주문봉사를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 진 장편만화영화들도 이 촬영소에서 제작되였다. 촬영소의 제작능력은 대단하다.

로조단체, 대화에 성실히 나설것을 당국에 요구

서울의 ≪문화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로총≫이 14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발전산업 로조간부들에 대한 체포령장 발부 등 탄압을 중단하고 민영화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성실히 나설것을 ≪정부≫당국에 요구하였다.

단체는 당국이 성실한 대화를 통해 23일까지 발전산업 로조와 회사간의 합의를 이룩하지 못할 경우 총 파업에 들어 갈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단체는 전 지역의 소속 로조들에서 발전산업로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로동자대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이제리아에 조선도서를 기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들을 비롯한 조선도서들을 나이제리아인민민주당 전국집행위원회에 기증하였다.

도서기증식이 12일 나이제리아인민민주당청사에서 진행되였다. 나이제리아인민민주당 전국부위원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각하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께서 령도하시는 조선로동당의 건설경험과 사업방법을 배울수 있는 귀중한 도서들을 받아 안게 된것을 특별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도서들을 기증해 준 조선로동당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의 풍부한 당건설경험과 당사업방법이 수록된 귀중한 도서들은 나이제리아인민민주당의 재부로 된다고 말하였다.

≪테로와의 투쟁≫ 구호, 조선을 반대하는데 리용될수 없다

이따르-따쓰통신에 의하면 13일 로씨야국가회의는 국가회의 국제문제위원회 대의원그루빠가 제출한 성명 ≪국제반테로작전과 관련한 세계적안전에 대한 위협들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이란,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립장을 규탄하고 미국이 ≪반테로투쟁≫을 실제적인 테로조직들을 반대하는데로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미국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들을 반대하는데로 돌리였다고 폭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국가회의는 ≪테로와의 투쟁≫이라는 구호가 미국이 그 무슨 ≪악의 축≫으로 규정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란, 이라크를 반대하는데 리용될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그 어떤 구실밑에 말하자면 ≪대량살륙무기의 전파방지≫요, ≪테로와의 투쟁≫이요 하는 구실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란, 이라크의 정치체제를 전복하려는것은 이 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되며 또 예측할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수 있으므로 국가회의는 이를 단호히 규탄한다.

국가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협조를 계속하는것이 조선반도에서 안정을 보장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하면서 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계획을 동결시킬데 대한 1994년의 조미기본합의문을 준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쟁의 불을 지르는데로 나간다면 무자비하게 징벌할것이다

로동신문

≪로동신문≫ 18일부는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남조선에서 벌리려는 ≪련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규모와 내용, 형식에 있어서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전쟁불장난으로 규탄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우리의 사회주의를 압살하지 못해 피눈이 되여 날치는 미국이 숱한 침략무력을 끌어 들여 군사분계선대밑에서 전쟁연습을 벌리는척하다가 기회를 보아 북침전쟁도화선에 불을 달려 한다는것은 의심할바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미제우두머리들이 ≪상용무력축감≫이요, ≪전연무력철수≫요 하며 부산을 피운 진의도가 무엇인지 이제는 명백해졌다.

우리에게 터무니없이 트집을 걸며 ≪악의 축≫으로 몰아 대면서 ≪핵공격도 불사≫하겠다고 으르렁대는 본심이 무엇인지도 뻔하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희생의 대가로 세계제패야망을 추구하려는 미제의 전쟁책동을 절대로 수수방관할수 없다.

미제호전광들은 조선이 없는 세계는 있을수 없다는것이 강철로 다져 지고 일심단결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 같은 의지이고 배짱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무모한 전쟁소동을 걷어 치워야 한다.

침략자들이 우리의 경고를 듣지 않고 기어이 전쟁의 불을 지르는데로 나간다면 우리는 피 맺힌 원한과 증오를 폭발시켜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할것이며 조국통일을 실현할것이다.

남조선호전세력들도 저들의 반역행위가 비참한 파멸밖에 가져 올것이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한다.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성명

미국은 재미동포들의 가족상봉문제를 압력수단으로 리용

최근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은 우리 조국과 연고가 있는 재미동포들의 가족, 친척상봉문제를 들고 나와 벅적 떠들면서 그것을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하나의 압력수단으로 리용하려는 교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알려 진바와 같이 미국회 하원은 재미동포들의 가족상봉문제를 조미정부간 협상에서 공식적으로 토의할것을 ≪촉구≫하는 이른바 ≪결의안≫이라는것을 이미 채택하였으며 상원에서도 보다 ≪구체화되고 구속력≫을 가지는 ≪법안≫까지 꾸며 내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 세계본부≫를 비롯한 일부 반동적인 재미동포단체들을 내세워 우리의 한 일군이 극비밀리에 미국에 가서 흩어 진 가족들의 상봉문제를 협의하였으며 올해 초부터 정상적으로 재미동포들이 공화국을 방문하여 가족, 친척들을 만나게 된다는 헛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가 하면 재미동포들의 가족상봉문제가 미국시민들의 리익과 관련되는 문제라고 하면서 미국정부가 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을 류포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미동포들의 옹호단체인 재미동포전국련합회는 최근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지금까지 재미동포들의 조국방문사업이 자기 조직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되여 온데 대해 명백히 밝히면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재미동포들의 흩어 진 가족상봉문제를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리용하려는데 대하여 폭로한바 있다.

공화국에 연고가 있는 수많은 재미동포들이 오래전부터 우리 당의 광폭정치, 인덕정치에 의하여 아무런 차별없이 조국을 방문하여 가족, 친척들과 만나고 있는것은 널리 알려 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 지배층과 그 추종세력들이 재미동포들의 흩어 진 가족상봉문제를 가지고 국제적인 여론전을 벌리고 있는것은 이것을 인권문제와 같은 정치적문제로 둔갑시켜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해 보려는 불순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미국은 력사적으로 보나 주권국가들사이의 호상 관계원칙으로 보나 재미동포들의 가족상봉문제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아무런 명분도 체면도 없다.재미동포들의 가족상봉문제는 원래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의 절반땅을 강점하고 하나의 민족을 둘로 갈라 놓았으며 침략전쟁까지 도발함으로써 산생된 문제로서 미국은 이에 대하여 응당한 책임을 지고 이미전에 사죄했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오히려 지난 기간 조국을 방문하여 오래동안 헤여 졌던 부모, 형제, 친척들을 만나고 간 동포들에게 여러가지 박해를 가하는 비인간적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세상사람들의 격분을 야기시켜 왔다.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지금에 와서 격에도 맞지 않게 재미동포들의 가족상봉문제를 운운하며 우리 공화국에 그 어떤 압력을 가하려는 오만무례한 행위를 절대로 용납할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외국국적을 가진 해외동포들의 공화국방문을 실현시키는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이다.

미국은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하려 할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권문제를 안고 있는 제 집안의 일이나 똑바로 해야 할것이다.

민족의 존엄을 귀중히 여기고 있는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재미동포들의 흩어 진 가족상봉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내정에 간섭하면서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그 어떤 책동에 대해서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것이며 그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것이다.

주체91(2002)년 3월 18일 평양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

≪특강≫ 역사에 길이 빛날 선군 영장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 제24회

학사 리광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3월 18일

안녕하십니까.

전번 시간까지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우리 공화국의 군사적 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투쟁을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사회주의경제강국 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경제를 추켜세우기 위한 방도를 제시하신데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을 잃고 크나큰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 인민들에게 또 하나의 시련과 난관이 겹쳐들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엄혹한 경제적 난관이였습니다. 제국주의반동들은 군사적 압력과 함께 경제적 봉쇄를 강화하면 우리식 사회주의가 쉽게 무너지리라고 어리석게 타산하면서 대국상직후 우리 공화국에 대한 경제봉쇄책동을 전례없이 악랄하게 감행했습니다.

놈들의 이러한 고립압살 책동으로 해서 우리 공화국이 대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기술과 자금, 물자의 반입이 일체 차단되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의 경제거래에 나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공화국에서는 중요 경제 부문들 사이에 생산적 연계가 많이 끊어지고 적지않은 공장·기업소들이 필요한 원료자재 부족으로 생산을 멈추거나 조절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해째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식량난까지 겹쳐 많은 자금을 식량구입에 돌리다나니 공장·기업소들의 원료자재를 보장하는 사업이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형편은 말이 아니였습니다.

터놓고 말해서 고난의 행군 초시기 경제문제는 우리 혁명의 운명, 사회주의의 운명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될 정도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에 조성된 경제적 난관과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경제봉쇄를 짓부시고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가장 올바른 방도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5(1996)년 4월 22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경제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와 주체86(1997)년 1월 24일 전당 당일군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올해를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의 해로 되게 하자≫를 비롯한 여러 노작들에서 조성된 난국을 뚫고 경제를 추켜세우기 위한 방도들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경제를 추켜세우기 위한 방도는 무엇인가 하는데 대해서 보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경제를 추켜세우기 위한 방도로서 무엇보다도 당조직들의 사업과 당일군들의 일본새에서부터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도록 하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 **≪올해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당조직들의 사업과 당일군들의 일본새에서부터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난관을 뚫고 나가는데서 누구보다도 분발하여 뛰고 누구보다도 긴장하게 일해야 할 사람은 당일군들입니다. 당일군들이 얼마나 머리를 쓰고 어떻게 뛰고 일하는가 하는데 경제문제해결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우선 당조직들이 당의 경제정책 관철에 대한 정책적 지도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당에서 혁명적 경제전략을 제시하고 경제사업에서 정무원(오늘의 내각을 말합니다) 책임제, 정무원 중심제를 강화할 데 대한 방침을 비롯해서 중요한 방침들을 내놓았으나 그것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당조직들이 당의 경제정책집행에 대한 장악과 지도를 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당의 경제정책집행을 철저히 장악·지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당의 경제정책을 무조건 집행하도록 해야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정무원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행정경제일군들이 경제사업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이끌어주도록 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당조직들과 당일군들로 하여금 모든 행정경제일군들이 주인다운 입장에 튼튼히 서서 당정책의 요구대로 경제사업을 옳게 작전하고 전투지휘를 박력있게 하도록 잘 도와주고 적극 밀어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경제부문 책임일군들이 당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 들지 않고 걸린 문제를 보고도 책임적으로 풀어주지 않는 현상, 당적 입장, 국가적 입장을 떠나 본위주의를 부리는 현상을 비롯해서 일군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온갖 부정적인 현상들을 없애기 위한 투쟁의 불을 걸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일군들이 경제적 난관 앞에서 겁을 먹고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으면 오늘의 난관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신심을 잃거나 맥을 놓는 그런 패배주의적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밖에도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당일군들의 사업방법을 오늘의 혁명적 분위기에 맞게 고칠 데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조성된 경제적 난관을 뚫고 나가기 위하여 당조직들과 당일군들 앞에 나서는 방도적인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러한 가르치심이 있음으로 해서 당의 경제정책 관철을 위한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의 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경제를 추켜세우기 위한 투쟁이 활기를 띄고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그 어려웠던 시기 우리 공화국의 경제는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고립압살책동과 겹쌓이는 자연재해 속에서도 자기의 자립적 경제 토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활성화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경제를 추켜세우기 위한 방도로서 다음으로 내각 책임일군들이 경제사업에 대한 조직과 지휘를 바로 하도록 하셨습니다.

주체85(1996)년 4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와 당시의 정무원 책임일군들을 부르시여 경제사업에서 정무원 책임제, 정무원 중심제를 강화할 데 대한 담화를 하시는 자리에서 정무원 책임일군들이 경제사업에 대한 조직과 지휘를 바로 할 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정무원 책임일군들이 나라의 어려운 경제형편을 똑똑히 보고 경제사업을 주인답게 작전하고 조직·지휘할 데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경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경제전략의 요구대로 선후차를 옳게 가리고 중심고리를 찾아 거기에 힘을 집중하며 모든 경제사업을 철저히 현실에서 출발하여 작전하고 조직·지도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시여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에 따라 돌려야 할 공장·기업소들은 힘을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돌리고 다른 공장·기업소들은 보장조건에 맞게 돌려야 한다고, 그리고 보장 가능성이 없는 공장, 기업소나 직장들은 일시 세우도록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깨우쳐주셨습니다.

참으로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기 위한 길을 뚜렷이 명시한 귀중한 가르치심이였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긴장했던 당시의 형편에서 경제사업을 벌려만 놓고 제한된 원료와 자재, 동력을 숱한 공장·기업소들과 건설대상들에 분산시키면 적게 생산된 원료와 자재, 동력마저 효과적으로 쓰지 못하고 낭비하게 될 뿐 아니라 어느 단위에서도 생산과 건설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경제지도 일군들은 현실적 조건에 맞게 세울 공장은 대담하게 세우고 돌릴 공장·기업소들에는 자재와 전기를 집중적으로 대주어 생산을 추켜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경제를 추켜세우기 위한 방도로서 다음으로 인민경제의 선행부문과 금속공업을 추켜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주체86(1997)년 6월 21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인민경제의 선행부문과 금속공업을 추켜세우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사를 잘 지어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석탄공업, 전력공업, 철도운수를 추켜세우는 것은 올해에 주요 경제과업들 가운데서도 힘을 집중해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기본고리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계속하여 장군님께서는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이고 기초부문인 석탄, 전력,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결정적으로 추켜세우지 않고서는 경제문제와 인민생활문제를 풀 수 없고 국방건설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라가 물질경제적으로 지탱해 나갈 수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부문들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시고 그 해 말까지 점령해야 할 중요생산목표들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일군들은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에서 도달해야 할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 나갔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경제의 선행부문과 금속공업을 추켜세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추진되는데 맞게 이 사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전진시키기 위하여 공화국 창건 쉰 돐이 되는 뜻깊은 해인 주체87(1998)년 1월 1일 새해 공동사설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새해의 총진군을 다그치자≫를 내보내도록 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공동사설에서 주체87(1998)년을 우리식 사회주의의 결정적 승리를 일으켜나가는 보람찬 투쟁의 해, 새로운 비약의 해로 정하고 경제건설을 최대의 힘을 넣어야 할 주되는 전선으로 규정하도록 하시면서 인민경제의 선행부문과 금속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 과업을 다시금 명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1월 16일부터 21일 사이에 장군님께서는 자강도에 대한 역사적인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셨습니다.

(12면에 계속)

41개 교육 · 시민단체 ≪교육재정 확충요구≫ 기자회견

19일 오전 11시 ≪교육재정 확충, 교육시장화 정책 전면 철회를 위한 교육주체 ·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열렸다.

이는 교육학생연대,교수노조, 전교조 등 교육제단체 뿐만 아니라 41개 시민사회단체가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 시장화 정책 전면 철회에 대해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전국민적 반대 여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립학교법 국민운동본부 상임의장,교수노조 이승백 기획정책실장, 전교조 대학노조 김용백 위원장, 사회당 원용수 대표, 전학협 임시의장 윤수진 연세대 총학생회장, 한총련 대변인 홍익대 총학생회장, 전학련 의장 구정모 서울대 총학생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41개 단체는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2002년 봄 신자유주의 교육 시장화 정책으로 교육의 위기를 절감하고 있다≫며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교육마저도 초국적 자본에게 넘기려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와 국공립대 회계 특별법 도입을 통해 국공립대의 등록금 이상을 부추기며 현재의 국가기간사업 민영화 사유화 계획과 흐름을 같이하여 국공립대마저도 민영화사유화 하려는 것에 다름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재정 확보는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며 ≪신자유주의 교육 시장화 정책을 전면 철회시키고 교육의 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함께 전개할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전국적인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교육제단체 · 시민사회단체 입장문을 통해 ≪지금껏 성역처럼 취급되어져 왔던 사립대학 등록금이 매년 10% 가까이 인상되어도 학생들을 위한 학비감면액, 시설비,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비용등은 거의 투자되고 있지 않다≫며 ≪시장체제에 던져두는 ≪자율화≫ 명분으로 사실상 교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의 교육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와 민영화 정책과 관련, 입장문 발표를 통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작년 11월 29일 발표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규칙 개정안≫의 주요 골자로 포함되어진 국공립대학 등록금 자율적 책정은 교육의 공고요성과 기회 균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반밍중적 조치≫라고 강력히 규탄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학생연대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 3월말까지 공동납부연기투쟁을 완강하게 벌릴 것 △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각 학교별로 총궐기, 학생총회 등의 완강한 투쟁 전개 △ 25일부터 대정부 농성투쟁 돌입과 3월 25일과 27일 각각 교육부 사이버 시위 △ 29일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도심 시위 △ 5월 중순 교육행동연대 차원의 총력투쟁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대학가 ≪춘투≫로 자리잡은 등록금 투쟁이 3월 말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범수기자
유뉴스 2002/02/03

11면에서 계속

대소한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도안에 중소형 발전소들과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던 장군님께서는 1월 17일 도당책임일군들에게 역량을 분산시키지 말고 중요한 공장들을 하나씩 하나씩 추켜세울 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이날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우리의 경제토대에 의거해서 중요한 대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려 나가야 한다, 나라의 경제를 한꺼번에 추켜세울 생각을 하지말고 세울 공장은 세우고 돌릴 공장은 돌리면서 개미가 뼈다귀를 야금야금 뜯어먹는 전술로 경제사업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제를 추켜세울 수 있는 전술과 묘술을 밝혀 주셨습니다.

장군님께서 이처럼 인민경제의 선행부문과 금속공업을 발전시킬 데 대한 방도를 제시하시고 끊임없는 현지지도를 통하여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심으로해서 석탄공업, 전력공업, 금속공업, 철도운수를 비롯한 중요 경제부문들에서는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기 위한 생산적 앙양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식 경제구조를 고수하기 위한 주공전선과 기본목표, 그 수행방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그 어려웠던 시기 우리 공화국의 경제는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고립압살책동과 겹쌓이는 자연재해 속에서도 자기의 자립적 경제토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활성화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노벨상이 무색한 테러방지법

19일 낮 12시 국회앞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한다≫라고 쓰여진 피켓을 몸에 걸고 1인시위를 하던 송영도(국가보안법폐지시민모임 회원, 50)씨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인권유린의 대명사인 국정원의 권한만을 강화시킬 뿐이죠.≫

지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인시위에도 참여했다는 송영도씨는 국가보안법보다 더 인권유린의 소지가 있다는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나가기 시작했다.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하는 ≪테러≫자체가 애매모호합니다. 국정원이 맘대로 끼워맞출 수 있죠, 그리고, 유사시에 군대를 동원하게 되어있는 것은 평상시에도 계엄상황과 같이 만들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노벨상을 탔다는 김대중 정부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송영도씨는 테러방지법의 입법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힘을 더 많이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러방지법은 작년 11월 12일, 국정원이 입법 예고한 후에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여론에 밀려 법 제정이 미뤄졌지만, 정부는 9.11테러 이후 확산된 테러 위협에 적극 대처하고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이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인권운동단체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테러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도 테러예방과 처벌이 가능하다며 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이들에게 테러 관련 수사권을 주는 테러방지법은 최근 인권유린으로 말이 많은 국정원의 권한을 크게 확대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보여왔다. 또, 국방부 밑에 테러진압 특수부대를 설치하고 국정원장이 이 부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 병력이 국가중요시설 보호 명목으로 민간인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위헌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반대여론을 의식해 당초 입법을 추진하던 여야도 월드컵 기간에만 적용하는 한시법의 형태로 제정을 고민하는 등 일단은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하지만, 국정원의 계속적인 입법추진 노력과 월드컵까지 맞물려 조만간 법 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동렬기자
통일뉴스 2002/03/19

노무현 44.7% - 이회창 40.9%

KBS · 한국리서치 17 · 18일 여론조사

≪노무현 대안론≫이 ≪이회창 대세론≫을 연이어 격파했다.

지난 16일 민주당 광주지역 대선후보 경선에서 예상을 깨고 1위를 차지한 노무현 고문이 대전지역 경선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또 다시 이총재를 이긴 것으로 나타났다. KBS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7, 18일 양일간에 걸쳐 조사한 결과, 이회창-노무현 양자대결에서 노무현 고문이 44.7%를 얻어 이회창총재(40.9%)를 3.8% 차이로 이겼다. 이회창-이인제 양자 대결에서 이인제 고문은 38.6%를 얻어 3.2% 차이로 이총재(41.7%)에게 뒤진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이처럼 여론조사에서 노 고문이 이총재를 누른 것은 지난 SBS · 문화일보-TN소프레스 공동여론조사와 MBC-갤럽 조사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 3월 13일 발표된 SBS · 문화일보의 공동여론조사 결과 노 고문은 41.7%를 얻어 40.6%를 얻은 이총재를 1.1% 차이로 따돌렸다. 처음으로 민주당 경선후보가 이총재를 누른 것이다.

또한 지난 3월 16일 MBC 여론조사에서 이회창-노무현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즉 39.6%를 얻은 노 고문이 이총재(37.3%)를 2.3% 차이로 따돌린 것이다.

게다가 이번 KBS 여론조사에서도 노 고문이 이총재를 3.8% 차이로 제치면서 심상치 않은 민심의 흐름이 읽혀지고 있다. ≪노무현 이변≫이 갈수록 본선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그 정도의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민심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중요한 징후≫라고 보고 있다. 조용휴 폴앤폴 대표는 ≪이것이 진짜 민심이라고 본다≫며 ≪노 고문의 본선경쟁력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총재는 호화빌라 문제 때문에 서민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며 ≪민주당에서는 국민경선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한나라당에서는 당내 경선조차 지지부진해 귀족적인 데다가 권위적인 느낌마저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고문 진영의 유종필 공보특보는 ≪광주 승리의 효과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며 ≪당원과 선거인단의 올바른 선택이 민심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당내 경선은 사실상 끝났으며 이제는 본선을 생각해야 할 때≫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한나라당에서는 ≪노무현 바람≫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이총재와 노 고문이 ≪귀족과 평민의 대결≫이라는 상징적 등식을 내세울 경우 ≪빌라파문≫에서 보듯 그 파괴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노 고문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될 경우를 상정한 대선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의원을 대입한 3자 가상대결에서는 이총재가 우위를 지켰다. 이회창-이인제-박근혜 3자 대결에서 이총재는 37.3%를 얻어 이 고문(29.5%)과 박의원(21.6%)을 각각 7.8%와 15.7% 차이로 따돌렸다. 또한 이회창-노무현-박근혜 3자대결에서는 이총재가 37.4%를 얻어 노 고문(34.9%)을 오차 범위 안에서 제꼈으며, 박 의원은 16.0%를 얻는 데 그쳤다. 즉 노 고문 지지표보다 이 고문 지지표가 박 의원 쪽으로 더 심하게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민주당 경선후보 지지도≫ 조사에 대한 결과다. 여기서 노 고문은 45.0%를 얻어 29.6%를 얻은 이 고문을 큰 차이로 따돌렸다. 다음은 정동영(6.9%), 한화갑(2.9%), 김중권(2.9%)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주당 경선후보 당선가능성≫ 조사에서는 이 고문(46.4%)이 노 고문(38.9%)을 제낀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는 ≪이인제 대세론≫이 건재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박근혜 신당 창당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8.0%에 그친 데 반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57.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박근혜 신당≫에 대한 민심이 의외로 호의적이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다.

결국 박근혜 신당에 대한 기대치가 한나라당 탈당 직후와는 달리 ≪노무현 돌풍≫으로 인해 반감되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정당지지도≫에서는 한나라당(30.5%), 민주당(27.2%), 자민련(2.2%), 민주노동당(0.8%), 민국당(0.5%), 사회당(0.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구영식기자

오마이뉴스 2002/03/18

민심 못 읽는 이회창

한나라당 이회창총재가 19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당 내분 수습책을 내놓았으나 일이 더 꼬여가는 양상이다. 이총재는 대선후보 출마선언 직후, 또는 5월 전당대회에서 당 총재로 선출되는 즉시 총재권한 대행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을 수습책으로 제시했다. 언뜻 봐서는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총재직만큼은 어떻게든 쥐고 있겠다는 이총재의 내심은 분명하게 읽힌다.

현재 내분사태를 촉발시킨 계기가 비주류측의 당권 · 대권 분리 요구인데 이번에 내놓은 수습책은 이를 정면으로 묵살해버린 셈이다. 총재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다보니 총재권한 대행체제라는 궁색한 수습책을 찾게 된 것 같다.

그것이 ≪사실상의 집단지도체제≫라고 하지만 ≪사실상≫이라는 수식어에서 벌써 억지섞인 강변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총재가 지명하는 총재 권한대행이 누구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인가는 불문가지이기 때문이다. 수렴청정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에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특단의 조치를 잔뜩 기대했던 한나라당 비주류 쪽에서는 실망스럽다는 기색이 역력하다. 기자회견 직전에 총재 경선 불출마 선언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돌았으니 실망이 더 크기도 할 것이다. 당내 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찾아 볼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있는가 하면 내분수습의 계기가 아니라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초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이부영 부총재도 ≪당이 위기라고 생각해서 내놓은 수습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태인식이 안이하다≫고 비판하고 나서 기껏 마련한 수습책이 오히려 새로운 분란의 불씨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다.

내분사태가 진정은 되지 않고 더 격화되고 있다면 이번에 내놓은 수습책은 의미를 찾기 힘들다는 생각이다.

한나라당 내부의 민주화는 정치발전 측면에서 무관심할 수 없으나 일차적으로 당 내부 사안이다.

그것보다 더 피부에 와 닿는 관심사는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로 유력시되는 이회창총재의 도덕성, 자질과 관련된 사안일 것이다. 집 문제, 손녀의 국적문제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총재는 이 두 가지 문제로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 데 대해 가슴 깊이 반성하고 사려깊지 못한 처신을 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자책했다. 집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이사해 해결할 것이고 손녀는 국내법에 따라 출생신고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긴다면 당 내뿐 아니라 당 밖의 민심도 읽지 못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사과와 반성도 좋지만 호화빌라의 실소유주, 자금출처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라는 것이 민심의 현주소이다. 돈이 없어 사돈 집에 얹혀 산다는 말과 현금 6억원에 땅 7천200평을 가졌다는 일각의 주장 사이에서 생겨나는 혼돈은 이번에도 해소되지 않았다. 손녀의 국내 출생신고 시점이 언제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그저 신고를 마쳤으니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곤란하다.

당심(黨心)은 물론 민심(民心) 읽기에도 어설퍼 보인다는 지적을 이총재와 주변 측근들은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연합뉴스 2002/03/19

발전소 외국자본과 재벌에 팔지 말아야 81%

발전소 매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 한길리서치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1. 국민의 86.2%는 발전소 매각에 대한 공론화가 부족하므로 현 정부 임기 내 매각 계획을 미루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전력생산의 60%를 담당하는 화력 발전소를 외국자본이나 재벌에게 파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는 17일 ≪발전소 민영화에 대한 전 국민 여론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발전노조 파업으로 불거진 발전소 매각 문제를 둘러싼 첫 국민여론 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2. 이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발전소를 외국자본이나 국내 대기업에 팔고 그들로부터 전기를 사서 쓰는 데 대해 81.0%가 반대한 반면, 찬성은 14.6%에 불과했고, 4.4%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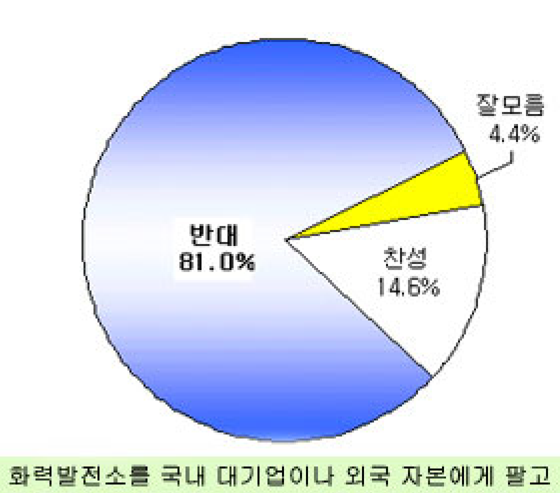
또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적자운영과 비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견해가 50.6%로 나타났지만, 다소 문제가 있어도 공익성이 큰 기간산업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견해도 43.9%에 이르러 민영화를 둘러싼 찬반견해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전소 매각 문제는 충분히 논의된 만큼 현 정부 임기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12.0%만이 찬성한 반면,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니 매각 계획을 보류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데는 무려 86.2%가 찬성했습니다.

나아가서 발전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량해임과 구속, 손배 청구, 경찰병력 투입 등 강경대응하는 데는 14.2%만이 동의했고, 84%는 정부와 노조가 즉각 협상을 다시 시작해 대화로 타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국민들은 발전소를 팔고 나면 전기요금이 오르고 공익기능이 축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전력대란 가능성에 대해서는 엇갈린 생각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의 63.6%가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고 판단한 반면, 기업간 경쟁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이뤄 요금이 내릴 것이라는 데는 13.9%에 그쳤으며, 지금과 별 차이가 없을 것 이라는 의견은 19.6%였습니다. 매각되면 산업용·농촌·낙도의 전기요금 할인 등 공익적 기능이 줄어들 것이라는 데 60.1%가 동의했고,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데에도 33.8%가 찬성했습니다. 전체의 50.8%가 매각 후에도 민간자본이 수익성 높은 전력산업에 적극 투자해 전력부족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투자를 꺼려 전력부족 사태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40.8%에 달했습니다.



화력발전소를 국내 대기업이나 외국 자본에게 팔고 그들로부터 전기를 사서 쓰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로들 발전소 매각 관련 견해 발표

한편 박형규 목사 이돈명 변호사 백낙청교수와 김윤환 경실련 전 대표, 박상응 참여연대 대표 등 사회원로들은 16일 9시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발전소 매각문제에 대한 사회원로들의 견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 국가기간산업인 발전소 매각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발전소 매각 관련 문제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정부, 시민공익단체, 노조 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하되,

2) 이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 정부는 발전소 매각 작업을 일단 유보하고, 노조는 즉각 파업을 풀고 현업에 복귀하기를 권고합니다.

3) 우리들은 이번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노력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시민·사회단체들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국민들도 이 난국의 슬기로운 해결을 위한 사회적 조정작업에 적극 나서 줄 것을 호소합니다.

박형규 (목사), 이돈명 (변호사), 김윤환 (경실련 전대표),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백낙청 (서울대교수)

교수 102인 선언 ≪발전 민영화 유보≫

발전산업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경제, 경영학 전공교수들이 정부의 발전산업 민영화 계획에 대한 유보 입장을 밝혔다.

전국 경제, 경영학교수 102명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서둘러서 발전산업을 민영화할 이유가 없으며 무엇보다 개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전력산업을 희생해서는 안된다≫면서 ≪민영화 계획을 유보해야 하며 민영화가 유보되면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직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김윤자교수(한신대)는 ≪국내 전력산업의 특성상 현재의 5개의 발전회사로는 실질적인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5개사의 과점 체제를 통한 가격 담합 가능성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전력시장이 선진 외국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유철규교수(성공회대)도 ≪국내 전력시장이 안정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전 민영화는 오히려 지역독점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를 막을수 있는 제대로 된 규제 장치 역시 마련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민영화 추진은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곤교수(한신대)는 ≪지난 200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전력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매각 자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1년동안 매각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한 것이지 매장을 보장한 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또 ≪발전산업 민영화로 인한 전력산업의 과점화, 전기 요금 상승, 전력공급 불안정 등의 문제점을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종환 참여사회연구소장은 ≪최근 발전산업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면서 ≪일부 정부 국책기관이 민영화 반대 여론을 막기 위해 토론자의 각종 토론회 참여를 막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나 가능했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원/권우성기자
오마이뉴스 2002/03/17

노동운동이 불법이 아니라 이들을 구속하는 정부가 불법

7백 19명의 노동자를 구속시킨 현 정권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거세질 전망이다.

19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향린교회에는 20여명의 국제자유노련 관계자들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모여 지난 18일 2년 징역을 선고받은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석방과, 노동자를 구속하는 노동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결사의 자유, 단체 교섭 권리, 파업 등 노조활동에 대한 한국정부의 탄압은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구조조정 등을 반대하는 노동자의 파업이 OECD국가에서는 결코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지적, ≪한국정부는 노동법을 노사관계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자유노련은 1997년에도 한국의 노동법이 국제노동기구가 규정하는 기준과 합치되지 않는다며 이를 개정하기 위해 고위급 방문단을 파견했었다.

이들은 당시 야당 총재였던 김대중 대통령이 ≪노동자의 결사·단체교섭·파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었다≫며, 김대중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과거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재 파업 농성 중인 발전노조와 관련해 ≪민영화 문제는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직접 영향을 받는 문제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사측이 노동자들과 충분한 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김세옥기자
시민의 신문 2002/03/19

전체 청년학생운동대오의 통일단결에 대하여 (2)

≪주체의 영도체계에 관한 이론은 먼저 근로단체들을 직업별, 계층별에 따라 유일적인 대중적 조직체들을 조직할 데 대한 원칙을 밝혔다.

. . .

근로단체들을 직업별, 계층별에 따라 유일적인 대중적 조직체로 조직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상교양단체로서의 그 역할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중요 담보로 되기 때문이다.

. . .

근로단체들을 직업별, 계층별로 유일적인 대중적 조직체들로 조직해야 하는 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근로대중의 조직적 단결과 통일의 중요한 담보로 되기 때문이다.

근로단체들을 조직하는 목적은 광범한 대중을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적극성을 적극 불러일으켜 당의 노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는 데 있다. 때문에 근로대중의 조직적 단결과 통일을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단체들의 조직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근로단체들을 직업별, 계층별로 묶고 그것을 전국적 범위에서 조직화하여야만 대중조직의 분산성과 대중이 분열될 위험성을 미리 막고 대중의 조직적 단결과 행동상 일치성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다.

. . .

광범한 군중을 직업별, 계층별에 따라 유일적인 대중조직에 묶어 세울 데 대한 원칙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혁명발전의 요구와 대중의 특성에 맞게 매개 근로단체들의 조직형식과 명칭, 과업 등을 옳게 규정하는 것이다.

근로단체들은 각이한 사상의식수준과 준비정도, 각이한 경향을 가진 각계각층의 군중을 망라한 대중적인 조직인 것만큼 명칭과 조직형식, 과업 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것은 각이한 대중을 조직에 끌어들이는가 못들이는가,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조직동원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그러므로 당과 혁명 앞에 나선 구체적 임무, 대중의 특성과 그들의 준비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개 근로단체들의 명칭과 조직형식, 과업 등을 옳게 규정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대중을 조직에 적극 끌어들일 수 있고 조직에 튼튼히 묶어세울 수 있으며 그들의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킬 수 있다.

근로단체들을 직업별, 계층별에 따라 유일적인 대중적 조직체들로 조직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또한 당 밖의 모든 군중을 빠짐없이 조직에 묶어세우는 것이다.

원래 근로단체는 광범한 대중단체인만큼 당 밖의 모든 군중을 빠짐없이 받아들여 조직에 묶어 세워야 한다. 만일 대중의 일부가 조직에 들어온다면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옳게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조직 밖에 있는 군중을 원쑤들에게 빼앗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혁명에 커다란 손실을 주게 되며 또 근로단체들을 단일화하는 사업도 잘할 수 없게 된다. 대중을 빠짐없이 근로단체들을 단일화하는 사업도 잘할 수 없게 된다.≫(근로단체, 주체사상총서 9권)

≪우리의 대중조직들은 첫째로 광범위한 군중을 망라하는 조직으로 되어야 한다.

대중성의 원칙이란 해당한 대중단체들의 계급 또는 계층의 일부가 아니라 그 전체를 조직대상으로 포괄적으로 망라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대중성의 원칙은 대중단체의 고유한 사명과 특성으로부터 나오는 합법칙적인 요구이다. 대중조직은 노동자계급의 전위조직과 엄격히 구별되는 어디까지나 대중적인 조직이다. 노동자계급의 전위조직은 근로민중의 가장 선전적인 정수분자들로 조직되는 핵심조직이고 향도적 조직이다. 그러나 대중단체는 자기 계급, 계층의 공통의 이익과 존엄을 옹호하기 위한 단합의 공간, 투쟁의 결집체로서 의식수준, 지식정도, 성별, 신앙에 관계없이 광범위한 대중을 포괄적으로 망라하는 대중단체이다. 이것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을 때 조직화 사업에서는 혼란이 조성되고 전위조직인지 대중조직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며 따라서 그 어느 사명과 역할도 똑똑히 수행할 수 없게 된다.

. . .

대중조직은 전위조직과 달리 자기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대중적인 원칙에서 건설해야 하고 각계 각층의 광범위한 군중을 결속할 수 있는 조직적 틀로서, 그들을 전위조직의 주위에 결집시키기 위한 인전대로서의 자기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대중단체의 위력은 얼마나 많은 단체의 대중을 자기의 구성원으로 포괄하는가에 따라 규정된다. 대중적 기반이 없는 조직은 모래 위의 누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자체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하여 대중으로부터 역량을 보장받지 못하고, 대중노선을 표방할 지라도 대중투쟁을 이끌어 낼 수 없으며 자기 보호성과 재건 능력을 가질 수 없다. 특히 오늘날 한국과 같은 파쑈체제하에서 광범위한 대중을 포괄하는 대중조직이 아니고서는 자기 존재와 활동의 합법적 공간을 실력으로 넓혀 나갈 수 없다.

. . .

대중성의 원칙을 실현하려면 우선 대중조직의 유형부터 광범위한 대중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결성해야 할 대중조직들은 지난날 일제 식민지 통치시기에 출현하였던 적색농조와 같은 조직으로 될 수는 없다.

사회주의적인 적색노조나 적색농조는 적색노동조합 인터내셔날 프로핀테른의 9월 테제(1930년 9월 18일)라는 ≪조선의 혁명적 노동조합의 임무에 관한 결의≫, ≪태평양 노동조합 10서신≫과 관련된 것으로서 계급해방노선을 기본으로 한 것이였으며, 광범위한 노, 농대중을 결속해야 할 오늘의 한국변혁운동의 요청에 부합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프로핀테른의 9월 테제는 조선노동운동의 당면임무를 제시하면서 적색노조와 적색농조를 지하에 확보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그에 따라 비합법 노조결성운동이 벌어졌으나 그것이 합법노조 전반을 부인하는 것으로 됨으로써 대중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대중으로부터 유리되는 한계성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변혁운동에서는 이같은 좌경적인 노조나 농조가 아니라 반미자주화와 민주주의적 변혁을 실현하려는 계급, 계층들의 공통적 요구에 맞는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 성향을 가진 대중조직들로 결성되어야 한다. 만일 이것을 무시하고 변혁의 단계를 뛰어넘는 변혁 슬로건을 내걸 때 이 조직은 대중으로부터 유리된 극소화된 조직으로밖에 될 수 없다.

대중성의 원칙을 실현하려면 조직구성도 광범위한 대중을 포괄할 수 있게 설정되어야 한다.

대중조직은 물론 아무나 거두어들이는 숫자 늘리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지만 어디까지나 자기 계급, 계층의 대중을 가능한 전부 포괄하거나 적어도 그렇게 하려는 조직으로 되어야 하는 만큼 구성원 자격에 엄격한 제한 조건을 설정하지 말아야 하며 규약 자체가 광범위한 대중을 포섭할 수 있게 규정되어야 한다.

. . .

대중성의 원칙을 실현하려면 그 내용상으로도 광범위한 대중을 포괄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조직을 편성해야 한다.

. . .

그러므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조직은 양분적이며 일면적인 조직이 아니라 노동자대중조직은 천만 노동자가, 농민조직은 칠백만 농민들이, 대학생조직은 백만학도가 하나가 되는 대중조직이다.≫(대중성, 민주주의성, 합법성의 원칙,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청년학생들 속에서 반미자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경향각지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에 당황한 분단세력과 공안당국은 지금 학생운동을 근원적으로 말살하기 위해 한총련에 대한 공격과 탄압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운동권의 내부분열과 와해를 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보모략기구들은 돈을 뿌려가며 프락치를 박아넣거나 어용학생회를 조작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총발동하고 있다.

이런 현실상황에서 청년학생들은 한총련의 기치아래 더욱 튼튼히 결집하여 학생운동을 보다 힘차게 벌여 나가야 한다.

그러면 현시기 학생운동강화의 요체는 무엇인가.

. . .

다음으로 학생운동권내에서 분파주의, 개인주의를 철저히 극복하는 것이다.

학생운동권내에서 개별분파나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분파주의, 개인주의는 학생운동강화에서 백해무익한 것이다.

분파주의는 조직을 약화시키고 동지들, 학우들간의 신뢰와 의리를 무너뜨린다.

분파주의, 개인주의를 허용하면 학생운동권 내부에 다양한 운동관과 전략전술적 견해들이 분립하며 역량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학생운동이 무력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학생운동이 자주, 민주, 통일을 목표로 강력하게 벌어지도록 하려면 운동권내에서 분파주의,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현시기 학생운동강화의 요체, 구국전선 2000 9 21)

≪백만청년학도들의 합법적 대표체인 한총련은 한국학생운동의 구심체, 단일조직으로서 식민지예속과 파쇼독재를 불사르고 반통일을 격파하는 조국통일운동의 일선에서 용맹을 떨치었으며 그 과정에 민중의 아낌없는 사랑과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왔고 불패의 애국대오, 구국의 강철대오로서의 자기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 . .

한국청년학생운동에서는 성과들도 많았지만 운동대오의 단합을 이룩하고 단결할 것과 시대의 요구와 *** 통일열기에 걸맞게 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 *****다.

. . .

새 세기의 요구에 걸맞게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청년학생운동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제는 운동의
➡

조직화, 대중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한총련은 자주통일 실현을 위한 주체역량의 **** 직시하고 청년학생들을 하나의 조직된 역량으로 결집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할 것이다.

한총련은 오늘 이 땅에 조성된 유리한 정세에 걸맞게 조직을 재정비하고 광범위한 학생들을 한총련의 주위에 광폭적으로 묶어 세워야 한다. 특히 학생회 간부들을 민족자주정신과 6.15남북공동선언 관철의지가 확고한 운동핵심들로 키워 조직적******며 그들의 역할을 높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각계민중과 청년학생들이 공감지지하고 있는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을 대중적인 운동으로 지향시키고 전국적 범위에서 줄기차게 벌여 나가야 한다.

. . .

청년학생운동의 도약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학생운동조직들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 것이다. 모든 학생운동조직들은 운동권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파주의 성향을 극복하고 개인주의적인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적 대의를 앞자리에 놓고 6.15남북공동선언 관철 기치 드높이 한총련을 중심으로 하나로 굳게 통일단결하여야 한다. 하나로 뭉친 청년학생들의 힘은 거대한 위력을 발휘하며 민족자주통일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청년학생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자, 한민전 청년학생국장 2001 2 11)

≪그러나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이 땅에서는 국민의 의식구조가 반미연북에로 더욱더 바뀌게 되었으며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정세의 변화로 우리 민족민주운동진영은 자기 운동의 당당한 명분과 확고한 대중적 지반, 그리고 유리한 활동공간과 우세한 세력입지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발전에 매우 고무적인 여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민주운동권에서는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불미스러운 현상들이 나타나 시대와 민족사의 외침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 피어린 파쇼탄압과 공안정국도 용감하게 이겨내고,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심각한 이념논쟁과 노선대결도 슬기롭게 극복하며 하나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온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지금 민족사의 중대한 시점에서 분파적 행동과 정국변화에 따른 전략전술적 혼선, 일부간부들과 활동가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편협한 사업방법과 작풍 때문에 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루지 못하고 대중의 달아오르는 투쟁열기를 하나로 모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 .

오늘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민족민주운동이 자기 입지를 확고히 차지하고 시대와 역사 앞에 주어지는 책무를 다해나가자면 자기 운동의 좌표를 바로 정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하나의 단합된 역량으로 매진해야 합니다.

현 시기 민족민주운동 앞에 나선 절박한 과제는 6.15공동선언을 관철하는 데로 모든 힘을 집중해 나가는 것입니다. 6.15공동선언은 반세기 이상에 걸치는 민족분단의 역사를 끝장내고 우리 민족 자신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 7천만 겨레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단입니다.

한국의 금후 정국은 6.15공동선언 지지세력과 반대세력 간의 대결로 집약되고 그 결말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

현 시기 민족민주운동 앞에 나서는 사활적인 과제는 분파주의를 척결하고 운동대오의 단합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운동대오의 통일단결 여하에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사활이 걸려있고 6.15공동선언실천투쟁의 승패가 집약돼 있습니다. 운동대오의 불패의 위력도 필승의 담보도 바로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통일단결에 있습니다.

운동대오의 통일단결을 위해서는 분파주의부터 척결해야 합니다. 분파주의는 조직을 분열시키고 동지들 간에 신뢰를 지울 수 있는 암입니다.

오늘 크거나 작거나 운동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파주의를 극복함이 없이는 민족민주운동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운동**의 좌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통일운동대오에서는 통일운동 지도부가 하나로 단합되어 통일적으로 통일운동을 지도해 나가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민족민주운동조직들은 새 세기에 들어선 정세의 요구와 환경에 걸맞게 그리고 운동단체들의 안팎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분파주의 경향을 대담하게 없애버려야 하며 모든 것을 단결에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운동대오의 단합을 무조건 이룩해야 합니다.

서로가 합심하고 협력하려면 상대방을 질시하고 시기할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자신의 주장과 고집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과 통일단결을 절대시하는 입장에서 서로 양보하며 실천투쟁 속에서 손잡고 힘을 합쳐 나가야 합니다.

광범위한 각계층 민중이 통일운동의 주인으로 나서고 있는 오늘의 전환기적 국면은 단결의 폭을 확대하고 사상의지적 단결과 순결성을 보다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현재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세력이라면 과거를 불문하고 서로 단합하는 대승적 안목에서 솟구쳐 오르는 각계민중의 통일열망을 뜨거운 품과 큰그릇에 담아낼 수 있는 거족적인 통일단결의 운동으로 되어야 합니다.≫(현 시국과 민족민주운동의 당면과제, 구국의소리 2001 1 31 – 2 1)

(내일계속)

통일여명 편집위원 한철규 발췌 (편집국 보도 63호)

조국통일3대헌장

민족대단결과 그 구심점 (5)

김일성주석과 민족대단결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민족대단결의 중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과 함께 그 분의 대업을 주도해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를 모신 것은 또 하나의 행운이 아닐 수 없다.

민족대단결을 현단계 통일문제 해결의 기본열쇠로 될 뿐아니라 통일된후 민족공동의 륭성번영까지도 담보하는 항구적이고 전략적인 방략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을 받들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며 그 분께서 시원을 열어 발전시켜오신 범민족대단결위업을 대를 이어 나가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를 또 한분의 령수로 모신 것은 참으로 대행운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일비서께서는 이미 **김일성**주석을 받들어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는 과정에 쌓아올리신 업적으로 하여 높은 권위를 지니고 계신다.

그 분의 권위는 무엇보다도 **김일성**주석께서 지니고 계시는 권위의 모든 징표들을 고스란히 그대로 체현하신데 바탕하고 있는 민족의 령수로서의 높은 권위이다. 그것은 **김일성**주석께서 지니고 계시는 자질과 품격을 그대로 체현하시고 민족의 운명 개척을 위한 투쟁에서 걸출한 령도자로서의 절대적 지위에 계시며 결정적 역할을 하시는 과정에 형성된 권위인 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빛나는 예지와 명석한 통찰력, 비상한 탐구심을 지니시였다. 어떤 문제든지 파고들어 비교분석하고 종합추리하여 새 것을 발견하고 창조하는 뛰여난 능력과 이민위천의 리념을 전통화한 혁명적인 가정환경은 **김정일**비서로 하여금 문무의 자질과 충효의 품성을 겸비한 출중한 위인상을 지니시게 하였다.

문무충효를 겸비한 위인중의 위인으로서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의 풍모와 권위는 인류사상사의 정상을 차지하는 특출한 사상리론적 업적과 온갖 도전과 위협속에서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실뿐아니라 좌절당한 세계 사회주의위업을 재건하는 령도업적에서 남김없이 과시되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께서는 무엇보다도 비상한 정력과 독창적인 탐구로 사상리론활동을 벌려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위력을 지도사상으로 빛내여 가신다.

그 분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체계로 그것을 현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원리와 내용들로 더욱 풍부화하여 빛내이고 계신다. 말하자면 **김일성**주석께서 인민의 토양에 씨를 뿌리고 키워오신 주체사상을 그 분께서 무성한 숲으로 가꾸어 풍만한 열매가 주렁지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오늘 주체사상은 새로운 원리와 내용들로 심화발전된 옹근 하나의 사상체계로서 그 분의 존함과 결부되여 불리워지게 되었다.

(계속)